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평범한 세계

(平凡的世界 한국어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 중 과

오 순 정

2020년 2월



# 평범한 세계

(平凡的世界 - 한국어번역논문)

지도교수 송 현 선

오 순 정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오순정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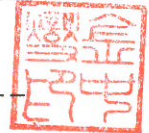
심사위원장

趙植



위 원

金中慶



위 원

宋旻宣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9년 12월



# The Ordinary World

Soon-Jung Oh  
(Supervised by Professor Hyun-Sun S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9.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Chines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제 1 장

1975년 2, 3월의 어느 평범한 날이었다. 보슬보슬 내리는 가랑비가 눈송이와 섞여 끊임없이 대지로 흩날렸다. 곧 경칩을 앞둔 시기라 그런지 눈은 더 이상 쌓이지 않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황토고원의 기나긴 추운 겨울은 곧 지나가겠지만 따뜻한 봄이 오려면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눈비가 흩날리는 이런 날엔, 사람들은 특별히 급한 일이 없으면 온종일 집 안에만 가만히 있다. 그래서인지 현(縣)<sup>1)</sup>의 크고 작은 거리는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거리 그늘진 곳엔 겨울이 남긴 눈과 고드름이 빗방울에 녹아내려 판석이 깔린 도로에 온통 더러운 물이 흘러내렸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텅 빈 거리에는 이따금 시골 사람들이 걸어왔는데, 방한용 벙거지를 머리에 쓰고, 감자나 무를 가득 담은 광주리를 팔에 끼고서 힘없는 목소리로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다. 이런 날의 도시는 완전히 생기를 잃었고 온기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산허리에 있는 현립고등학교만이 이 시간에 시끌벅적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일자로 늘어선 높고 낮은 들쭉날쭉한 동굴집에서 한 무더기의 기숙사생들이 뛰어나왔다. 학생들은 식기를 두드리고 휴탕물을 튀기며 소란스럽게 학교 마당을 지나 남쪽 총무처 동굴집 벽에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뒤섞인 학생들로 그렇게 큰 학교 마당이 순식간에 진창이 되었다. 동시에 이곳 출신 통학생들도 삼삼오오 학교 동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우산을 받치고 웃고 떠들며 긴 비탈길을 지나 곧 뿔뿔이 크고 작은 골목길로 사라졌다.

학교 남쪽 담벼락 앞에 학생들이 이미 학급별로 줄지어 점심 먹을 준비를 했다. 각 반 당번은 학생들에게 분주히 식사를 나누어 주고 있다. 모든 학생이 전날 등록하고 식권을 산 것이어서 복잡할 게 없었다. 당번은 식권을 받고 학생들에게 음식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음식은 특식, 정식, 간편식으로 분류되

1) 중국의 지방행정구획의 단위로 성(省)밑에 속함.

어 있다. 특식은 1인분에 30전으로 감자, 배추, 당면에 맛깔나는 큼지막한 돼지고기 편육 몇 점이 들어있다. 정식은 다른 재료는 특식과 같지만, 돼지고기 편육이 들어 있지 않고, 15전이다. 간편식은 훨씬 못하다. 맹물에 무를 넣어 끓인 국이다. 그저 이 변변찮은 국을 감추려는 듯 고추기름이 상징처럼 둥둥 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가격은 아주 싸다. 1인분에 5전이다.

학급마다 특식은 작은 대야에 조금 담겨 있다. 고기반찬을 사 먹을 수 있는 학생이 몇 안 된다는 것이다. 간편식도 조그만 대야에 담겨 있는데, 이런 초라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얼마 안 된다는 걸 말해준다. 정식만 큰 법랑 대야에 가득 들어 있다. 대부분의 학생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초라하지도 않은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다. 주식도 세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밀가루 찌빵, 옥수수 찌빵, 수수 찌빵이었다. 희고 노랑고 검은 찌빵 색깔은 일종의 차별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이런 찌빵을 색깔별로 구분해 재미 삼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라고 불렀다.

새카맣게 줄을 선 학생들은 대부분 다 시골에서 온 듯, 얼굴과 몸에선 많은 적든 육체노동을 한 흔적이 있었다. 자기 부모들처럼 촌스러운 차림인 한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꽤 체면 차린 모습이었다. 그들 부모 눈에 이 학생들은 이미 ‘선생’이다. 가난한 산간지방 농사꾼들은 지금 당장 대부분이 먹고 살기 어렵지만, 자녀들이 기왕 큰 지역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 이상, 이를 악물고 절약할지언정 그럴듯한 옷도 만들어줘야 했다. 물론 줄 서 있는 학생 중 집안 형편이 좋은 농사꾼 자녀들도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옷차림새는 도시 간부들의 자녀들과 별 차이가 없었고 반짝거리는 손목시계도 흔히 차고 있었다. 이런 ‘세련된 학생’들은 군중 사이에 서서 굳게일학처럼 자기의 우월감을 전혀 감추지 않았다. 그들은 특식 앞에 줄 서 있었고, 몇 명 안 되지만 특별히 시선을 끌었다.

황량하고 척박한 황토고원에 있는 현립고등학교는 현의 최고 학교였다. 그렇지만 학생들을 위해 식당을 지을 여력은 없었다. 날씨가 어떻든 모두가 밖에서 밥을 먹었다. 다행히 기숙사 학생들은 모두 시골 출신이라 산과 들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래서 모두 이런 일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모두 각자 친한 친구들과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다.

오늘은 달랐다. 음식을 받은 학생들은 다들 밀짚모자나 팔꿈치로 그릇을 감싸고, 비척거리며 힝탕이 된 학교 마당을 지나 자기 기숙사로 돌아갔다. 얼마 안 지나 배식장엔 몇 명만 드문드문 남았다. 대부분의 학급 당번들도 잇달아 돌아갔다.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당번 학생만 아무도 없는 배식장에 남아 있다. 작고 통통한 이 여학생은 어릴 적에 소아마비 같은 병을 앓았는지 조금 절뚝거렸다. 그녀 앞에 놓인 세 개의 반찬 대야에는 반찬이 다 떨어졌고, 찌빵 광주리에도 시커멓게 탄 것 같은 수수 찌빵 네 개만 남아 있었다. 그 찌빵은 당번인 자기 몫이 아닌 듯했다. 그녀의 손엔 밀가루 찌빵과 옥수수 찌빵이 있었고 그릇에도 정식 같은 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절름발이 여학생이 중산층이란 걸 의미했다. 그녀는 음식을 들고 우거지상으로 처마 밑에 서 있었다. 분명 제일 마지막에 느릿느릿 걸어오는 -가장 열악한 주식을 먹을 뿐 아니라 5전짜리 간편식조차 사 먹을 수 없는- 가난한 학생을 기다리는 것이다.

비 사이로 눈발이 갑자기 거세지고, 주위는 점점 더 보일 듯 말 듯 아득해져 도시는 적막하고 고요했다. 먼 곳에서 수탉 울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와 이 아득한 세상에 현실이 아닌 듯한 음침함을 더했다.

그때, 텅 빈 학교 마당 북쪽에서 마르고 키 큰 청년이 걸어왔다. 겨드랑이에 그릇을 끼우고 목을 움츠린 채 힝탕물 위로 비척거리며 걸었다. 누르고 마른 얼굴에 양 볼은 움푹 꺼지고 코는 그리스인처럼 높고 곧았다. 그의 얼굴은 방금 소년티를 벗은 -하지만 영양부족으로 그 나이에 맞는 청춘의 빛을 뺏어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마르고 긴 다리로 침범침범 힝탕물을 밟으며 걸었다. 수수 찌빵 주인일까? 불쌍한 옷차림새로 봐서는 겨우 이런 음식만 먹을 수 있는 형편일 것이다. 옷은 그럭저럭 학생복 티가 나긴 했지만, 분명히 집에서 직접 짠 촌스럽고 거친

천이었고 까만 염색은 얼룩덜룩해서 더러워 보였다. 낡고 누런 고무신은 끈이 떨어져 흰 실로 끈 끈으로 동여맸는데, 한쪽 신발은 심지어 양옆에 남색 형겔 조각으로 덮어 꿰맸다. 바지는 몇 년 전에 만들었는지, 그동안 키가 자라 지금은 꼭 끼고 짧아 종아리에 닿았다. 양말 목이 길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리 살이 다 보였을 것이다. 양말 두 짝 다 뒤꿈치가 터진 지 오래됐는데 신발로 가려져 멀쩡해 보였지만, 이런 사실은 자신 말고 아무도 몰랐다.

그는 곧바로 배식장으로 걸어왔다. 남은 수수 찌빵 몇 개를 가지러 오는 것이다. 절름발이 여학생은 그가 찌빵 광주리 앞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그릇을 들고 지체 않고 절뚝거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는 혼자 찌빵 광주리 앞에 와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몸을 굽혀 수수 찌빵 두 개를 집어 들었다. 남은 찌빵이 두 개 더 있었지만 그는 더 꺼내지 않았다.

그가 몸을 일으키자 그의 눈이 저절로 힐끔 비어 있는 세 개의 광주리로 향했고, 정식 대야 밑바닥에 아직도 국물이 남아 있는 걸 보았다. 지붕 처마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 대야 안에 남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돌아보니 눈비가 자욱한 학교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재빨리 앉아 황급히 도둑질하듯, 대야 바닥에 빗물이 섞인 남은 국물을 국자로 퍼서 자기 그릇에 담았다. 대야 바닥을 긁는 스테인리스 국자 소리가 마치 폭탄이 터지는 소리처럼 소스라칠 정도로 컸다. 그의 누렁고 마른 얼굴이 피가 몰리듯 붉어졌다. 처마의 큰 물방울이 대야로 떨어져 그의 얼굴에 온통 국물이 튀었다. 눈을 질끈 감자 눈물이 천천히 그의 볼에서 떨어져 내렸다. 매운 국물이 튀었을 테지.

그는 일어서서 손으로 얼굴을 닦고, 국물이 반 남은 그릇을 들고 뜨거운 물이 있는 남서쪽 구석방으로 갔다. 방 뒤쪽에 설치된 물통에서 뜨거운 물을 받고는 찌빵을 뜯어 국물에 적셨다. 그리고 처마 아래 쪼그려 앉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씹던 것을 멈추고 한 여학생이 광주리 앞으로 가서 남은 수수 찌빵 두 개를 가져가는 걸 바라보았다. 그렇다. 그녀도 온 것이다. 그는 해진 옷을 입은 그녀가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이는 거의 관례가 되었다. 개학 후 식사 때마다 늘 두 사람이 가장 늦게 와서 조용히 각자 수수 찌뽕 두 개씩 가져갔다. 결코 어떤 약속을 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사실 서로 잘 알지도 못했고, 말 한마디조차 나눠 본 적이 없었다. 둘 다 얼마 전 각 공사(公社)<sup>2)</sup>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의 고등학교에 추천받아 온 것이다. 개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학생들은 서로 아는 친구들과만 친했고, 잘 모르는 학생들 사이에는 별다른 교류도 없었다.

그는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음식을 퍼먹으면서 속으로는 그녀가 늘 마지막에 음식을 가지러 오는 이유가 자신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렇다. 그녀는 가난했기 때문에, 밥다운 밥을 사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젊고 민감한 자존심 때문에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자기의 구질구질한 수수 찌뽕 두 개를 가져가는 것이다. 많은 소리 없는 비웃음을 받지 않으려고 말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수업할 때 하루에 한 번 호명하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하오홍메이(郝紅梅)란 것만 알 뿐이었다.

그녀도 아마 그의 이름만 쑤사오핑(孫少平)이라고 알 것이다.

---

2) 인민공사(人民公社). 중화인민공화국이 1958년 농업 집단화를 위해 만든 행정조직의 기초단위이다. 공사, 생산대대(生産大隊), 생산대(生産隊)라는 3단계 조직으로 이루어짐.

## 제 2 장

쑤사오핑이 학교에 다니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오핑처럼 열일고여덟 살 난 청년은 무엇이든 잘 먹는 나이였다. 그런데 그는 끼니마다 겨우 수수 찌빵 두 개로 버텨야 했다. 전에 아버지한테서 옛날에 지주는 가족에게도 수수를 먹이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영양이 손톱만큼도 없는 곡식이다. 지금 그에겐 이런 수수 찌빵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다. 그의 식사량으론 한 끼에 적어도 이런 검은 수수 찌빵 네다섯 개는 먹어야 했다. 이런 음식은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일 뿐이었다. 온종일 교실에 앉아있다면 억지로 버틸 순 있었다. 그러나 요즘 ‘개문판학’<sup>3)</sup>開門辦學<sup>3)</sup>으로, 학생들은 단체로 농촌과 학교를 오가며 공부와 노동을 번갈아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반나절은 공부하고 반나절은 노동을 했다. 공부는 사실 아예 교과서도 없이 지역에서 발행한 인쇄물로 했고 수업 시간엔 주로 신문 사설을 배웠다. 개학하고 며칠 동안 공식적인 수업이란 없었고, 모든 학급이 날마다 교실에서 무산계급 독재 이론을 공부하고 토론했다. 당연히 대부분 도시 학생들이 발표했고, 일부 담이 큰 농촌 학생들을 빼고는 아직 아무도 발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노동은 오후 두 시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무조건해야 하는 일이었다. 쑤사오핑은 이 시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학교 밖 언덕 아래에서부터 흠을 지고 학교 뒤편 비탈진 밭으로 옮길 때마다 눈이 흐릿해지고 천지가 뱅글뱅글 돈다는 걸 느낄 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후들거리는 두 다리를 힘겹게 기계적으로 움직여 한 걸음씩 꾸물꾸물 기어 올라갈 뿐이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었다. 지금 가장 괴로운 건 가난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열일 곱 살이었고 가슴속에는 감수성과 수치심이 고동쳤다. 점잖게 차려입고 여학생 앞에서 있길 갈망했고, 다른 학생들처럼 매일 밀가루 찌빵이나 옥수수 찌빵을 곁들인 정식을 먹을 수 있

3) 개문판학(開門辦學). 문화 대혁명 기인 중 교육 혁명의 한 방법으로 학교 수업을 공장 혹은 농촌의 실제 생활과 연계한 방식.

기를 바랐다. 그것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존엄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결코 도시 학생들처럼 우월한 여건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시골에서 온 대부분의 학생만큼만 돼도 만족할 터였다.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했다. 사오핑처럼 젊은 청년이 공짜 밥을 먹으며 현의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집은 정말 흔하지 않았다. 사오핑의 형은 당시 그와 여동생을 학교에 보내려고 열세 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시험도 치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큰누나는 학교라고는 가 보지도 못했다. 그는 지금 가족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것도 모자란 데, 뭘 더 해달라고 한단 말인가?

사오핑은 집안 형편이 이미 파산 지경이란 걸 알고 있었다. 팔십이 다 된 할머니는 반신불수로 병상에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었다. 그래서 일도 잘 못해 노동 배급도 얼마 못 받았다. 여동생은 공사 중학교에 진학해서 필요한 게 많아졌다. 누나는 게으른 남편을 만나 혼자 어린 자녀 둘을 키우며, 하루 세끼도 잇기 어려워 사오핑네 집에서 먹을 양식을 자주 보태주어야 했다. 부모님은 두 손자가 안타까워 종종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였다.

집에 돈을 버는 사람은 사실상 형 혼자였다. 그러나 형도 이제 겨우 스물셋이다. 사랑하는 형은 열세 살부터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기 시작했다. 형이 없었다면 집은 한없이 몰락했을 것이다.

사실은 고작 몇 식구라 아버지와 형 두 사람만 일해도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요 몇 년 동안 힘들게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은 적어 해가 갈수록 손에 남는 건 없었다. 생산대(生産隊)<sup>4</sup>가 가난한데 집이 가난한 건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부모님은 평생 고지식하고 무능해서 집은 이미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졌다. 해마다 수확이 없으니 갈수록 더 가난해졌고 생활이 나아질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오핑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집에 먹을 거나 입을 것이 조금만 있어도 연로한 할머니와 어린 동생을 먼

4) 인민공사의 3단계 조직 중 말단 조직으로 25~30호(戶)로 이루어짐.

저 생각해야 했다. 하물며 누나의 작고 어린 두 생명은 말할 것도 없었다.

사오핑이 지금 처한 여건은 그를 열등감에 빠지게 했다. 비록 반에서 키가 가장 컸지만, 그는 자신이 다른 학생보다도 머리 하나만큼 작다고 느꼈다.

가난은 또 그의 자존심을 더 크게 만들었다. 사오핑은 늘 다른 사람들이 그의 초라한 모습을 비웃는다고 생각했기에, 가정형편이 좋은 학우들한테 속으로 이상한 경쟁의식을 느꼈다. 지금만 해도 위풍당당한 반장 구양민(顧養民)에게 이미 강하게 반감이 생겼다. 반장은 세련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교단에 서서 고상하게 출석을 부르며 손목을 들고 시계를 보았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오핑은 알 수 없는 어떤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라 화를 삼키지 못했다. 출석을 부를 때 반장이 호명하는 대로 학생들은 대답했다. 한번은 사오핑이 대답할 순서가 되었는데도 그는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다. 반장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 번 크게 사오핑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사오핑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중학교였더라면 이런 일은 곧 싸움으로 번졌을지 모른다. 다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해서 서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지, 반장은 사오핑의 모욕적인 멸시를 참으며 계속해서 다른 학생의 이름을 불렀다.

호명이 끝난 후 사오핑은 같은 마을에서 온 진보(金波)와 같이 교실을 나갔다. 진보는 웃으면서 사오핑에게 슬쩍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말했다.

“잘했어!”

“난 반장이 싸우자고 할까 봐 걱정했어.”

쑤사오핑은 오히려 방금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했다.

“그 자식이 감히!”

진보는 눈을 크게 뜨며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둘렀다.

진보는 사오핑과 동갑이지만 키는 사오핑보다 머리 하나만큼 작았다. 피부는 하얗고 얼굴은 곱상해서 여자아이처럼 생겼다. 그러나 심지가 굳고 무슨 일을 하던 손발이 무척 빨랐다. 조용할 땐 계집애 같지만 행동할 땐 호랑이 같았다.

진보의 아버지는 지역 운수회사의 운전사였다. 그래서 진보네 가정형편은 사오핑네보다 훨씬 넉넉했고 학급에서는 비교적 잘 사는 편이었다. 사오핑과 이

‘부잣집 도련님’의 관계는 특별했다.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 서로 잘 맞았다. 그 후에도 줄곧 같이 학교에 다녔다. 시골에서 진보의 아버지는 집 밖에서 근무를 했다. 그래서 진보의 집에는 힘쓸 일이 많았고 늘 사오핑과 아버지 혹은 형이 도와주었다. 진보의 여동생도 사오핑의 여동생과 학교에 같이 다녀 두 아이는 그림자처럼 떨어질 줄 몰랐다. 진보가 사오핑을 돕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들이 공사 중학교에 다닐 때 학교는 마을에서 5km 넘게 떨어져 있었고, 돈을 아끼려고 둘 다 집에서 먹는 걸 해결했다. 저녁에 돌아오고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점심 도시락도 챙겨갔다. 매일 10km를 다녔다. 사오핑과 같이 학교를 다닌 진보와 생산대대 서기 텐푸탕(田福堂)의 아들 룬성(潤生)은 둘 다 자전거가 있었다. 사오핑만 걸어 다녔다. 그래서 진보는 사오핑과 자전거 한 대로 같이 타고 다녔다. 2년이 지난 후에 룬성의 자전거는 여전히 새것 같았지만, 진보의 자전거는 고물이 되어버렸다. 진보의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또 한 대 사주었다. 지금 사오핑과 진보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현에 있었고 집까지는 30km 넘게 떨어져 있었다. 매주 토요일에 집에 가려면 사오핑은 진보의 자전거가 꼭 필요했다. 이것 말고도 고등학교에 온 후 진보는 또 여러 번 사오핑에게 밀가루 배급표를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곤 했다. 그렇지만 사오핑은 그걸 쓰지 않고 돌려주었다. 요즘은 그 누구도 밀가루 배급표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밀가루 찌빵 몇 개로는 버티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식욕만 당기게 할 뿐이었다.

비록 학교에 다니는 게 힘들지만 쏘사오핑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기쁨도 있었다. 그는 이미 산촌에서 큰 세상으로 나왔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서는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학교에 별일만 없으면 매일 혼자 나가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크고 작은 골목길과 여기저기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은 다 다녔다. 몇 군데 무서운 기관인 현 혁명위원회와 현 무장부대 그리고 현 공안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공공기관을 돌아다녀 봤다. 대부분 화장실을 핑계 삼아 공공기관 입구를 지키는 할아버지를 구슬려 들어갔다. 낯선 곳이라 사오핑은 공공장소에서 자기의 궁색한 차림도 느

길 새 없이 마음껏 이 도시의 사방팔방을 돌아다녔다. 그렇게 돌아다닌 시간 동안 그는 새로운 인상을 많이 받았다. 심지어 도시의 자욱한 석탄 냄새를 맡을 때에도 독특한 풍격이 있다고 느꼈다. 물론 새로 보고 느낀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여지없이 그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도시 생활의 견문을 통해 사오핑은 그가 십여 년간 살아온 마을을 더욱 자세히 보게 된 듯했다.— 그가 있던 익숙하고 오래된 세상에서 그에게 많은 의미가 있던 것들이 지금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곳의 많은 중요한 것들이 지금 오히려 이렇게 신선한 무언가로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

아무런 목적 없는 배회 말고도 그는 지금 책에 푹 빠져 있었다. 이 습관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룬성네 집에 갔을 때 상자 위에 있던 두꺼운 책을 보게 되었다. 그 책에는 룬성이 어머니가 마름질한 신발 깔창 견본이 끼워져 있었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란 제목의 책이었는데, 처음엔 어떤 책인지 신경 쓰지 않았다가 대충 훑어보니 뭔가 이상했다. 분명 철강 제련에 관한 것인데, 제련은커녕 파벨 코르차긴이란 소련인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었다. 사오핑은 갑자기 이 이상한 책에 강렬한 호기심이 생겼다. 어떤 책인지 궁금했다. 룬성이 자기 누나 책이라고 했다. 룬성의 누나는 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그 책은 룬성의 어머니가 깔창 마름질본을 넣어두려고 가져온 것이다.

룬성의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사오핑은 책을 챙겨 급히 집에 돌아와 읽기 시작했다.

사오핑은 곧 책에 빠져들었다. 다음날은 일요일이었다. 평소에 그는 산에 가서 집에서 쓸 장작을 쪼갠데, 그날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혼자 마을의 벼 타작하는 곳의 벧짚 단 뒤에 숨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한없이 책을 읽었다. 파벨 코르차긴이란 이 평범한 외국인 이야기는 어린 그의 마음을 강렬하게 흔들어 놓았다.

어둠이 깊어진 후에도 사오핑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과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감상하며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 생각은 혼란스러우면서도 붕 떠 있는 듯, 심오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듯했다. 그는 산으로 둘러싸인 쌍수이촌(雙水村)밖에 광활한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든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어렵פות이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 순간, 생활의 정감이 열여섯 살 난 그의 가슴에 가득했다. 그의 눈앞에는 자꾸만 파벨의 앙상한 얼굴과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 떠올랐다. 파벨의 두 눈은 멀지 않았고 영원히 눈부시게 요원한 곳에서, 형제처럼 사오핑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사오핑도 사랑스러운 부잣집 딸인 토니아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가난한 집 아들인 파벨을 깊이 사랑했다. 사오핑은 마지막까지 토니아를 미워하지 않았고, 그녀와 파벨의 마지막 이별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도 토니아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날 사오핑은 저녁밥도 잊고 가족들이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주위의 모든 것을 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투덜거렸고 형은 나무라는 눈길을 보냈다. 부뚜막에서 차가운 수수죽을 먹으려고 할 때야 사오핑은 냉혹한 생활이라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사오핑은 소설에 빠졌다. 특히 소련 책을 좋아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조야와 슈라의 이야기》를 읽었다.

사오핑은 학교와 현 문화관의 도서관에서 온갖 방법을 다 해 책을 찾고 있었다. 지금 출판되는 책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미 소련 책 몇 권을 읽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중국 책들은 그에겐 아무런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외국책과 문화 대혁명 이전에 출판된 중국 책만 찾아다녔다.

점점 더, 그는 매일 독서에 심취해갔다. 한가할 땐 낡은 이불속에 누워 한없이 책을 읽었다. 학교 밖을 돌아다닐 때는 겨드랑이에 책을 끼우고 다녔다. 그리고 다 돌아다녔다 싶으면 조용한 곳을 찾아 책을 읽었다. 나중에는 교실에서 회의를 하거나 정치학습을 할 때도 몰래 책상 아래 숨겨놓고 읽을 정도였다.

얼마 후, 무산계급 정치에는 관심도 없고 ‘반동 책’만 읽는 그의 행동은 곧 담임선생님에게 폭로되었다. 고자질 한 사람은 사오핑의 자리와 가까운 절름발이 허우위잉(侯玉英)이었다. 그녀는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이었다. 신체적인 장애가 어떤 심리적인 장애를 만들어 냈는지, 그녀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마치 온 힘을 다해 세상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비록 다리는 절지만 어찌면 자신이 더 나은 점도 있다는 걸……. 토론할 때 허우위잉은 늘 첫 번째로 발표했고, 간부처럼 설득력 있게 무산계급 독재 이론에 대해 설명했다. 노동할 땐 비록 다리는 절어도 늘 어떻게든 일을 했다. 당연히 타인에게 모범을 보이길 좋아하면서도, 기율감찰위원회의 서기처럼 학급의 혁명 요구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날은 〈인민일보〉 사설인 ‘지도자가 앞장서서 학습하자’를 배우고 있었다. 담임선생님은 반장 구양민한테 사설을 낭독하라고 시켰다. 쑨사오핑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고개를 숙여 몰래 소설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절름발이 여학생이 담임선생님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자질한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선생님이 사오핑 앞에까지 걸어나 그의 손에서 책을 뺏고 나서야 그는 갑자기 놀라 멍해졌다. 반 전체가 잠시 웃음바다가 되었다. 구양민은 읽던 것을 멈추었고, 마치 자신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지켜봤다. 하지만 쑨사오핑은 반장이 분명히 고소해하며 선생님이 자기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다.

담임선생님은 압수한 책을 연단 위에 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양민한테 계속 신문을 낭독하게 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은 사오핑을 기숙사로 불러서는 뜻밖에도 책을 돌려주면서 말했다.

“《붉은 바위》는 아주 좋은 책이지만, 다음부터 수업 시간엔 읽지 마라. 가봐라.”

쑨사오핑은 감사해하며 교무실에서 나왔다. 꾸짖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아껴준다는 것을 선생님의 눈에서 볼 수 있었다. 그 일로 그는 더욱 책을 좋



아하게 되었다. 그렇다. 그의 하루는 수수 찌빵 몇 개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책이 있어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고 또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도 생겼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눈앞의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들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상에서 사실 형언할 수 없는, 그의 마음에 따뜻함과 즐거움을 주는 소소한 일도 한 가지 있었다. 식사 때마다 그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야 혼자 검은 수수 찌빵 두 개를 가져갔다. 그때마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과 똑같이 수수 찌빵을 챙겨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처음에는 그와 하오홍메이란 여학생은 아무 상관없이 각자 자기 찌빵을 가지고 돌아갔다.

언제부터인지 그녀는 찌빵을 가지러 올 때, 쏘사오핑을 슬쩍 보았고 그도 여학생을 바라봤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 말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주 말 없는 표현을 한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말 없는 ‘대화’는 점점 더 많아졌다.

쏘사오핑은 하오홍메이가 반에서 가장 예쁘다는 걸 알았다. 단지 해진 옷차림과 누렇게 뜬 얼굴색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제일 예쁘다는 걸 알아채지 못할 뿐이었다. 교양도 좀 갖춘 그 나이의 젊은 청년은 종종 ‘신여성’에게 온갖 정성을 다한다. 특히 시골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남자들 눈에, 도시 집 간부의 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다. 물론 그 나이의 젊은 남녀는 진지하게 사귀려고는 못 하지만 그들은 알게나마 그런 감정을 알았다. 더욱이 갓 그럼 감정을 알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 비해 더 열정이 끓어올랐다. 누가 겪어보지 않았겠는가? 베르테르처럼 혼란을 겪는 이런 나이에는 이성 간의 아무리 사소한 감정이라도 청년의 마음엔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쏘사오핑은 지금 그 정도까진 아니다. 초라한 그의 일상에서 친절과 호의로 관심을 기울여주는 여학생이 있다는 것에 더없는 따뜻함을 느꼈을 뿐이다. 가련하고 마른 얼굴에 가늘고 긴 목 그리고 창피함을 겨우 면한 그녀의 낡은 옷차

림 모두 사오핑의 마음에 봄날 출렁이는 파도처럼 맴돌았다.

그들이 이런 말 없는 ‘대화’를 한동안 하고 난 후, 마침내 어느 날 하오홍메이가 검은 수수 찌빡 두 개를 가지고 느리게 사오핑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날 선생님이 압수하지 않은 그 책 제목이 뭐야?”

“《붉은 바위》야. 현 문화관에서 빌려왔어.”

검은 수수 찌빡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그렇게 가까이 있어서 더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아주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에 있는 검은 수수 찌빡을 보았다.

“책에서 장 씨라는 여자…….”

그녀는 원래 긴장을 잘 안 하지만, 사오핑의 어색한 모습을 봐서 그런지 그녀의 목소리도 약간 떨렸다.

사오핑이 서둘러 말했다.

“응. 나중에 희생됐어. 아주 비장하게.”

그는 자기 생각에 멧있는 말로 덧붙였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총을 가진 할머니도 나와.” 하오홍메이가 말했다.

“너도 그 책 읽어봤어?”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다.

“아니. 전에 아버지가 책 내용을 말해줬어.”

“아버지? 아버지가 읽으셨어?”

“응.”

“아버지는 어디……?”

사오핑은 낡은 옷차림을 한 이 여학생의 아버지가 《붉은 바위》를 읽어 봤다는 게 놀라워서 그녀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농민이지만 신분이 좋지 않아. 지주였어.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지주였어. 그래서…….”

“그럼 아버지가 학교에 다녔어?”

“아니, 할아버지가 다녔어.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글을 배웠어.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오래야. 난 《붉은 바위》를 읽지 않았지만 가극은 부를 줄 알아. 내 이름이 바로 아버지가 가극에서 따 온 거야.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 붉은 바위 위에 홍매가 열려…….”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천천히 말을 했고, 그는 멍하니 듣고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책 돌려줬어?”

“아직.”

“내가 봐도 돼?”

“그럼!”

그는 시원스레 대답했다.

다음날 사오핑은 바로 그녀에게 책을 빌려주었다.

그때부터 그가 읽은 책은 바로 그녀에게 빌려주었다. 그가 그녀에게 빌려주든 아니면 그녀가 그에게 돌려주든 두 사람은 약속하지 않아도 조용히 진행되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을 같은 반 친구들한테 들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둘 다 알고 있었다. 조용히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 제 3 장

경칩이 지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춘분이 지났지만, 끝없는 황토고원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야산의 초목은 메마르고 대지는 황량했다. 그저 밤이 확연히 짧아졌을 뿐이었다.

4월 초, 청명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천지를 뒤덮는 모래바람이 불었다. 온천지가 어두컴컴해져 대낮인데도 집에 불을 켜놓아야 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이런 모래바람은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징조였다. 그렇다. 절기로 봐도 봄이 왔다는 기미였다.

청명 날은 모래바람이 멈추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먼지로 자욱했고 잿빛이 온 세상을 덮었다.

그 후 며칠 사이에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다. 거리와 강가의 버드나무에서 푸른 잎이 돌아나고, 은행나무 가지에도 분홍색 꽃봉오리가 가득 맺힌 걸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자세히 보면 양지 언덕의 메마른 풀들 사이로 이미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돌아났다. 다른 나뭇가지에도 연초록의 빛을 머금은 잎이 자라나고 푸릇푸릇한 꽃망울이 부풀어 올라 갓 피어나는 꽃다운 처녀처럼 아름다웠다.

쓴소오핑의 삶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수수 찌뽕을 먹고 빌려온 책을 읽었으며 도시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그는 다 읽은 책을 계속 하오홍메이에게 빌려주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었다.

시간이 좀 지나 반 친구들 간에도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사오핑과 시골에서 온 비교적 가난한 학생들 간에는 어떤 우정이 생겼다. 사오핑이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한테서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는 이 점이 아주 기뻐고 자신이 남보다 못한 건 아니란 걸 느꼈다. 게다가 날씨도 따뜻해져 학교에는 이미 복사꽃이 붉게 피고 버들잎은 푸르러 마음이 한결 즐거워졌다. 또 한 벌 뿐인 얇은 옷은 지금 입기에 안성맞춤으로 덥지도 춥지도 않았다. 여전히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 말고는 다른 건 당연히 만족스럽다고 할 만했다.

그날 오후 노동은 전교생이 학교 뒤에 있는 굽이진 고랑에 파종할 땅을 파는 것이었다. 한 시간이 채 못 돼 쏘시오핑은 배가 고파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캄캄해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힘없이 곡괭이를 쥐고 다른 학생들보다 뒤쳐지지 않으려고 했다.

가까스로 버텨 작업을 마칠 때가 되자, 마을 친구 룬성이 갑자기 사오핑한테 와서 말했다.

“사오핑, 우리 누나가 낮에 왔었는데 오후에 너 데리고 작은아버지 집으로 오래. 할 말 있다면서. 그리고 너한테 오후에 학교 식당에서 밥 먹지 말고 작은아버지 집에서 먹으래.”

룬성은 말을 끝내고 작업하던 곳으로 돌아갔다.

쏘시오핑은 갑작스러운 초대에 잠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룬성의 누나가 무슨 일로 날 불렀지? 게다가 누나네 작은아버지 집으로 오라고?

이 일로 그는 안절부절못했다. 룬성의 작은아버지는 현 혁명위원회 부주임으로 현에서 대단한 인물이다. 가끔 그분이 마을을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늘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당시 사오핑은 길에 세워져 있는 지프차에 가까이 늘 가보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감히 근처에도 못 갔다. 그런데 하물며 그분의 집에 밥을 먹으러 가야 한다니!

그러나 사오핑은 룬예(潤葉)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룬예의 아버지가 사오핑네 마을의 지부 서기이고 작은아버지도 현의 간부로, 집안은 아주 좋았지만, 룬예 누나는 마을 사람 누구든 상관없이 아주 잘해줬다. 가장 중요한 건 룬예 누나가 사오핑의 형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고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다는 것이다. 나중에 누나는 현의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형은 집안 형편이 안 좋아 농사꾼이 되었다. 하지만 누나는 형에게 전과 똑같이 대했다. 후에 누나는 현의 성관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공무원이 되었다. 룬예는 마을에 올 때마다 사오핑네 집에 들러 형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사오핑의 할머니에게 먹을 것을 사 왔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한 건 그녀

가 항상 간식을 들고 그녀의 친척인 바보 삼촌 텐얼(田二)을 방문한 것이다. 텐얼 본인도 바보였지만 아들도 바보였다. 부자는 항상 집안에 대소변을 봐서 냄새가 심해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집에 발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룬예는 늘 간식을 들고 그들을 보러 갔다. 마을 사람들은 룬예의 이런 너그러운 모습을 칭찬했다.

룬예와는 다르게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위신이 높지 않았다. 사오핑의 아버지와 형은 둘 다 너무 우직해서 서기인 룬예의 아버지와 의견 충돌이 잦았기 때문에 두 집안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나 룬예는 늘 사오핑네와 가깝게 지냈다. 어쩌면 이점 때문에 평상시 서기는 사오핑네 가족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오핑은 마음속으로 항상 룬예 누나를 존경하고 그녀에게 감사해했다.

이치대로라면, 룬예가 사오핑을 초대했으니 그는 당연히 룬예 말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룬예의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건 정말 고마우면서도 난처한 일이었다. 사오핑은 현 옷을 입고 현의 고위 간부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리 견딜 수 없었다.

일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와 학교에서 곧 배식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가 안 가면 룬예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았다. 그리고 룬예가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자신이 안 가면 룬예의 일에 지장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는 건 또 약간 두렵기도 했다. 그는 여태껏 이렇게 높은 간부 집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 집에서 밥도 먹어야 한다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게다가 자기의 차림새가 너무 창피하다고 느꼈다.

사오핑은 갑자기 묘안을 생각해 냈다. 일단 그 집에 가지 말고 학교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직접 룬예를 만나러 성관초등학교에 가는 것이다. 그럼 룬예를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작은아버지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는 성관초등학교가 중학교 바로 아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전에 할 일 없이 돌아다닐 때, 그 학교 운동장에 가봤기 때문이다.

결정을 하고 나니 룬성이 그를 데리러 곧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

숙사에 멍하니 있지 말고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그는 곧장 기숙사를 나와 학교 마당으로 갔다.

어디로 갈까? 아직 배식이 시작되지 않았다. 배식이 시작되어도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나서야 음식을 가지러 갈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고 어쩔든 갈 곳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남쪽 총무처 옆 작은 문을 나와 학교 바깥으로 갔다. 학교 담장을 따라 서쪽에 있는 작은 개울가로 갔다.

그곳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며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피리를 만들어 입에 물고 불었다. 아직도 아이 같은 모습이다.

얼추 다른 학생이 밥을 다 가져간 후에 그는 다시 작은 문으로 학교에 들어가 배식장으로 갔다. 찌빵 광주리 앞에 가보니 검은 수수 찌빵 두 개만 남아 있었다. 흥메이가 이미 자기 몫의 찌빵 두 개를 가져간 것이다.

사오핑은 검은 수수 찌빵을 들고 기숙사로 가는 길에 생각했다. 찌빵을 다 먹고 따뜻한 물도 마신 다음 룬예한테 가야겠다고……. 아마 그때쯤 룬예는 학교에 도착하지 않을 시간이지만, 집 앞에서 기다리면 되니 상관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검은 수수 찌빵을 들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기숙사 문 앞에서 멍해졌다. 룬예가 기숙사 구들 가장자리에 앉아 그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사오핑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룬예가 걸어와서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 작은아버지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어?”

“나…….”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룬예는 재빨리 그의 손에서 찌빵 두 개를 빼앗고는 물었다.

“어느 게 네 그릇이야?”

그는 손가락으로 그릇을 가리켰다.

룬예는 그릇에 찌빵을 넣고 말했다.

“나랑 밥 먹으러 가자.”

“난…….”

룬예가 사오핑의 앞까지 와서 그의 소매를 잡고 그를 끌어당겼다.  
거절할 수 없어 그는 하는 수 없이 룬예를 따라나섰다.

현 혁명위원회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간 후, 그는 불안해하며 신성한 그곳을 둘러봤다. 여러 층으로 된 현 혁명위원회의 동굴집은 낮은 경사진 언덕을 따라 한 채씩 있었고, 꼭대기 층에는 큰 강당이 있어서 아주 장관이었다. 밤에 모든 동굴집이 불을 켜면 그야말로 웅장한 건축물일 것이다.

사오핑은 꼭대기 층 동굴집 벽돌담을 올라다봤다. 거기에서 룬성이 상체를 내밀고 그들이 올라가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룬성은 꺾련을 피우다가 어설픈 담뱃재를 털었다. 텐푸탕의 귀한 아들 룬성은 현에 오자마자 간부 아들의 허세를 다 터득했다.

사오핑은 룬예와 그녀의 작은아버지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룬성이 걸어와 사오핑에게 말했다.

“기숙사에 가서 두 번이나 널 찾았는데, 대체 어디 갔었어?”

이 유명인사의 집은 크지 않은 독채로 동굴집이 모두 네 채 있었다. 담장 저편에는 다른 간부들이 사는 것 같았고 집 구조가 똑같았다. 마당 동쪽에 작은 동굴집이 있고 옆에 석탄이 쌓여 있어 주방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서쪽엔 작은 화단이 있고 회색 스웨터를 입은 사람이 삼으로 흠을 고르고 있었다. 사오핑은 룬예의 작은아버지라고 생각했다. 자세히 보니 그가 만나본 적 없는 백발이 성성한 나이 든 간부였다.

그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룬예를 따라 옆에 있는 동굴집에 들어갔다. 룬성은 영화를 보러 간다며 눈도장만 찍고 나갔다.

룬예는 사오핑에게 장방형 탁자에 앉게 하고는 대접할 음식을 가지러 나갔다. 지금 사오핑은 혼자 이런 낯선 곳에 앉아 있고, 마음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손을 어디 놓을지 몰라 얇전히 무릎 위에 놓았다. 다행히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위를 돌아보니 방에는 구들을 놓지 않고 상자나 껌짝 그리고 다른 잡스러운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방이 커 널찍한 공간이 남아있었다. 탁자 사방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어 식사하는 곳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때 사오핑은 밖에서 한 여자가 룬예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룬예가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듣고 그는 텐 주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 룬예의 작은 어머니는 현 병원의 의사이고 수술로 정평이 나 있어, 사람들은 쉬(徐) 박사인 그녀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앞다투어 현 병원까지 왔다.

쉬 박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왜 외투를 안 입었어요? 감기 들어요!”

힘없는 목소리로 노인이 대답했다.

“출근.”

사오핑은 방금 마당 화단 옆에서 본 흠을 고르던 노인이라고 짐작했다. 알고 보니 텐 주임의 장인이었다.

잠시 후 룬예가 유기 칠이 된 빨간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사오핑은 재빨리 일어섰다. 룬예는 쟁반을 탁자 위에 놓고 쟁반에 있는 돼지고기를 곁들인 당면 한 대접과 새하얀 찐빵 한 접시도 놓았다.

그녀는 다정하게 사오핑의 팔을 손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얼른 앉아서 먹어! 우린 벌써 먹었어. 난 나가서 설거지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맛있게 먹어. 학교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잖아.”

룬예는 나무쟁반을 들고 나갔다.

쑤사오핑의 울대뼈가 크게 움직였다. 고기반찬과 찐빵 냄새가 그를 어질어질하게 했다.

그는 앉아서 젓가락을 들고 우선 길게 숨을 뱉어 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조용히 우적우적 먹기 시작했다. 룬예가 그를 혼자 두고 간 걸 감사해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어색할까?

그는 돼지고기를 곁들인 당면 대접을 깨끗이 비우고 찐빵도 다섯 개나 먹어 치웠다. 두 개 더 먹을 수 있었지만 참았다. 이미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이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니 배가 은근히 거북했다. 음식을 너무 급하게 많이 먹었

다. 수수 찌뽕을 먹던 위가 의외의 호사를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몇 발자국 걸었다. 그때 룬예가 들어왔고 그 뒤로 한 여자애가 따라 들어와 그를 보며 웃었다.

룬예가 말했다.

“애는 샤오샤(晓霞)야. 우리 작은 아버지 딸이야. 만난 적 없어? 애도 너네 학교에 갓 입학했어.”

“너랑 룬성이 같은 반이지?”

텐샤오샤(田晓霞)가 당차게 물었다.

“응.”

사오핑은 자신의 얼굴이 불붙은 것처럼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우선 자기의 더럽고 헐어 빠진 옷을 의식했다. 세련되고 예쁘게 차려입은 여학생 앞에 서 있으니 자신이 마치 그녀의 집에 구걸하러 온 거지 같았다.

룬예는 그릇을 치우고 샤오샤는 친절하게 차를 따라 주었다.

샤오샤는 찻잔을 사오핑 앞에 놓고 말했다.

“우린 같은 마을 사람이잖아! 한가할 때 우리 집에 놀러 와. 난 열일곱 살이 되도록 우리 마을에 가본 적이 없어! 언제 한번 너랑 나, 룬성 셋이서 같이 쌍수이촌에 가자. 난 1학년 2반이야. 우리 마을에서 두 명이 더 왔고 둘 다 1반이라고 룬성한테 들었는데, 너희들을 만나러 가지 못했어. 나 정말 못 됐지?”

샤오샤는 완벽한 표준어로 웃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활달했고, 사오핑은 그녀가 건문이 넓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겹옷을 남자처럼 어깨에 걸쳐 입었는데 그는 그게 너무 놀라웠다.

사오핑은 서서 긴장한 채로 있었다. 룬예가 그릇을 주방에 놓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서둘러 룬예한테 말했다.

“누나, 별일 없으면 난 가볼게.”

룬예는 그가 난처해하는 걸 알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 아직 할 말도 못 했는걸!”

사오핑은 그때야 룬예가 저녁식사 말고도 할 말이 있다고 한 게 생각났다.

룬예는 그가 불편해하는 걸 너무나 잘 아는지 바로 또 말했다.

“알았어, 내가 데려다줄 테니까 가면서 얘기하자.”

“물 마시고 가!”

샤오샤가 사오핑한테 컵을 건넸다.

“됐어!”

그는 농사꾼처럼 투명스럽게 말했다.

샤오샤는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며 웃으면서 말했다.

“괜히 따라왔네!”

사오핑은 그녀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했다. 이런 농담은 사실 친하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는 되레 거북했는지 얼굴이 온통 빨개져 아무 말도 못 했다.

샤오샤는 난감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나갔다.

사오핑은 룬예를 따라 학교로 향했다.

그들이 현 혁명위원회 앞에 도착했을 때 퇴근하는 텐 주임과 마주쳤다. 사오핑은 룬예의 작은아버지란 걸 알았다. 텐 주임이 종종 마을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직 식사 안 하셨어요?”

룬예가 작은아버지께 물었다.

“방금 회의가 끝났어.”

현 간부인 그는 이목구비가 그의 형인 텐푸탕과 아주 닮았지만, 머리를 뒤로 넘겼고 얼굴도 훨씬 인자하게 생겼다.

“누구 집 자제이지?”

텐 주임이 사오핑을 가리키며 룬예에게 물었다.

“우리 마을의 사오안 동생이잖아요! 애도 올해 고등학교에 갓 입학했어요.”

“아, 쏘위허우의 둘째 아들! 벌써 다 컸네. 아버지 닮아서 키도 크구나! 샤오샤랑 같은 반이야?”

텐 주임은 고개를 돌려 룬예에게 물었다.

“아니예요. 룬성이랑 같은 반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또 누구 집 자식이 고등학교에 입학했니?”

텐 주임이 이번엔 사오핑에게 물었다.

사오핑은 어색한 듯 손톱을 후벼 파며 말했다.

“진보요.”

“진보? 진보라면…….”

사오핑은 머릿속에 ‘쿵’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자신이 잘못 대답한 줄 알았다.

룬예는 헤헤 웃으며 서둘러 작은아버지에게 말했다.

“진진하이(金俊海) 아들 말이에요”

텐 주임도 웃으며 말했다.

“아, 운수회사에서 차를 모는 진하이 말이구나. 날도 어두웠는데 집에 가서 식사하자!”

그는 사오핑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룬예가 말했다.

“벌써 먹었어요. 제가 데려다주는 길이에요.”

“잘 했군, 자주 놀러 와라.”

텐 주임은 뜻밖에도 손을 내밀며 사오핑에게 악수를 청했다.

사오핑은 당황해하며 재빨리 손을 내밀었다. 텐 주임은 그와 악수를 하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곧 뒷짐 지고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사오핑은 오른손에 난 땀방울을 옷자락에 닦고 룬예와 중학교로 통하는 돌로 된 비탈길에 도착했다.

한참을 걷고 난 후 룬예가 갑자기 물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갈 거니?”

“응.”

“집에 가면 형한테 조만간 시간 내서 나한테 오라고 해.”

룬예는 사오핑을 보지도 않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인 채 발로 자갈을 멀리 찾

다.

사오핑은 룬예가 왜 형을 오라고 하는지 잠깐 이해가 되지 않았다. 룬예가 확실히 말을 안 하니 묻기도 곤란해서 그는 아무렇게나 말했다.

“집 상황이 안 좋아 형이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여튼, 며칠 내로 오라고 해. 형한테 꼭 전해! 여기 오자마자 바로 초등학교로 나 찾아오라고 말이야.”

룬예는 완강하게 말했다.

사오핑은 형이 반드시 와야 한다는 걸 알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꼭 전할게!”

“그래.”

룬예는 다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날이 어둑어둑 저물기 시작했다. 도시 전체에 이미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바람이 따뜻하게 뺨을 어루만지듯 스쳤고 흙과 푸른 새싹의 신선한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다.

얼마나 좋은가? 봄밤!

룬예는 사오핑을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얼른 들어가.”

룬예는 말을 하고 나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사오핑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곤 곧장 몸을 돌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보고 말했다.

“배급표는 양식으로 바꿔 써.”

사오핑이 무슨 일인지 채 깨닫기도 전에 룬예는 이미 언덕 아래 모퉁이로 사라졌다. 그는 어둠 속에 멍하니 선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그만 배급표를 꼭 쥐었다. 코끝이 짙히고 눈은 잠시 눈물로 흐릿해졌다.

## 제 4 장

금요일에 쏘시오핑은 조퇴를 하고 성관 식품점에 가서 룬예가 준 오십 근 어치의 식량 배급표로 밀가루 스무 근과 옥수수 가루 서른 근을 샀다. 요즘 같은 쉰 근은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룬예가 그에게 찢러 넣어준 조그만 배급표는 30위안어치였고 양식을 사고도 10위안이 남았다. 그는 남은 돈으로 할머니 진통제와 안약을 먼저 사고 난 다음, 자기가 학교 배식장에서 쓸 반찬 식권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는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를 학교까지 들쳐 메고 와서, 옥수수 찌빵 식권 서른 근과 밀가루 찌빵 식권 다섯 근으로 바꿨다. 남은 밀가루 열다섯 근은 자신이 쓰기엔 아까워서, 내일 집에 가져가 할머니와 조카들에게 주기로 했다. 옥수수가루 서른 근으로도 그는 이미 풍족했다. 앞으로 한동안 사오핑은 검은 수수 찌빵을 먹는 중간에 가끔 황금색 옥수수 찌빵을 먹을 수 있다. 다섯 근 어치의 밀가루 찌빵 식권은 형과 같이 먹으려고 남겨 두었다. 형이 여기에 오면 내내 룬예 누나 집에서 먹을 수도 없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이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그는 형까지 학교 배식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받게 할 수는 없었다.

다음날 낮에 사오핑은 먼저 길거리에서 할머니께 드릴 약을 사고 나서, 조그만 밀가루 포대는 진보의 기숙사로 가져갔다. 두 사람은 같이 밀가루를 자전거 뒷자리 옆에 묶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이 시기가 되면 학교는 시끌벅적했다. 시골에서 온 학생들은 길쭉한 잡낭을 챙기고 현에서 가까운 곳은 걸어서, 먼 곳은 자전거를 타고 잇달아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편안한 밤을 보낼 것이다. 형편이 좋은 집에서는 부모가 집에 온 자식들에게 늘 맛있는 음식 두 끼를 만들어 먹였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음 주 학교에서 먹을 여분 양식으로, 잡낭 가득 그럴듯한 먹을 것을 담아줬다. 이 기간엔 그렇게 큰 학교가 썰물이 빠져나간 해변처럼 조용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시골 학생들은 잇달아 학교로 돌아와 이 세계는 또다

시 시끌벅적한 모습을 회복했다.

사오핑과 진보는 자전거를 타고 현을 나와 서쪽 도로를 따라 함께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번갈아 자전거를 몰았다. 흥분하고 즐거웠다.

현에서 그들이 사는 마을까지는 35km 길이였다. 이 길은 황토고원 두 지역을 연결하고 있어서 차들이 비교적 많았다. 현에서부터 평야는 비교적 넓게 이어지다가 점점 더 좁아지고 25km쯤부터 완전히 끊어진다. 우뚝 솟은 산 사이의 골짜기에 간신히 좁은 길 하나가 만들어진 정도이다. 이 길은 분수령까지 이어졌다. 가파른 산맥은 갑자기 남북으로 통하는 길을 가로막았다. 옛날에 이 길은 구불구불해서 여기에서부터 산을 돌아 올라가야만 산 저편까지 갈 수 있었다. 몇 년 전 산허리를 뚫어, 이 산 중턱에 길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는 여전히 길고 가팔랐다. 이곳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 길가 배수로에는 전복된 차들이 자주 보였다. 오르막에서는 거북이만큼이나 느리고 내리막에서는 가속도가 붙어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가 결국에는…….

이 언덕은 자전거를 몰고는 넘을 수 없었다. 사오핑과 진보는 번갈아 자전거를 밀며 올라가느라 두 사람 다 땀범벅이 되었다.

분수령을 넘으면 바로 공사였다. 골짜기 길은 산 건너편과 마찬가지로 아주 좁다. 이 골짜기를 따라 십여 개의 마을이 있고, 각 마을은 5km쯤 떨어져 있다. 그리고 작은 강이 마을 사이를 흐르고 있다. 이 작은 강은 동라허(東拉河)이고 바로 분수령 아래에서 발원했다.

산을 내려와 샴촌(下山村)이란 마을을 지나 5km 더 가면 바로 공사 소재지인 스거제촌(石圪節村)이다. 사오핑과 진보가 사는 황수이촌은 스거제 공사에서도 5km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관쯔촌(罐子村)이 있다. 사오핑의 누나 란화がこの 마을로 시집갔다.

사오핑과 진보는 분수령을 넘어 자전거를 타고 큰 오르막을 바람처럼 내려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샴촌을 지나 바로 스거제 공사에 도착했다.

공사는 도로 맞은편에 있고 작은 다리가 동라허 위에 걸쳐 있어 도로와 진

(鎭)<sup>5)</sup>을 연결했다. 어림짐작해서 50m쯤 되는 형편없는 길에 유일하게 그럴듯한 건물이 있는데, 바로 공급수매합작사 직매점이다. 이 지역은 인근 십여 마을 사람들의 눈엔 아주 큰 곳이다. 장이 서는 날엔 여자들은 멋지게 한번 치장할 만했다. 길 남쪽에는 조그만 식당도 있다. 통통한 요리사 몇 명은 이 공사와 공사주임처럼 유명했다. 가난한 이 벽촌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고기반찬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는가!

오늘은 장이 서는 날이 아니라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사오핑과 진보도 다리 건너 돌아다닐 생각이 없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중학교에 다닐 때 그들은 자주 이 거리에 와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다. 그때 그들의 눈에는 이곳이 아주 큰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미 더 큰 세상을 다녀 봤기 때문에 이 허름한 거리는 그들에겐 이미 어떤 매력도 없었다.

다만 공사 앞 중학교 근처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자전거를 멈추었다. 중학교는 강 건너편에 있고 네다섯 개의 교실이 두 줄로 된 동굴집이었다. 학교 아래 흙으로 덮인 조그만 운동장엔 오래된 농구대가 있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곳인가! 그들은 이곳에서 2년이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마치 이곳이 자신의 일부처럼 익숙했다. 지금 그들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은 늘 그들의 꿈속에 나타났다.

토요일 오후라 학교엔 정부 파견 교사 몇 명만 빼고, 학생들과 노동 배급을 받는 교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여동생 란샹(蘭香)과 진슈(金秀)도 아마 집으로 갔을 것이다.

산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하니 골짜기 길은 어두워지고 바람도 약간 서늘해졌다. 사오핑과 진보는 잠시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곧바로 자전거를 타고 또 다시 출발했다. 사오핑이 자전거를 몰고 진보는 뒤에 탔다. 진보는 한 손으로 다정하게 사오핑의 허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고향은 유명하다네. 쑤이더저우(綏德州) 삼십 리 멀리 있다네…….”

5) 중국의 현(縣) 밑에 있는 행정 단위.



은빛처럼 맑은 등라허는 이곳에서 강물이 불어나, 석양빛 아래 잔잔히 반짝이며 길을 따라 흐르다 골짜기에서 휘감아져…….

관쓰촌에 도착했을 때 사오핑은 갑자기 자전거를 멈추었다. 여동생 란샹이 길가에 서 있는 걸 봤는데 누굴 기다리는 듯했다. 자신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오핑과 진보가 자전거에서 뛰어내리자, 란샹은 그들 앞까지 달려와 있었다. 사오핑은 동생의 얼굴에 눈물이 맺힌 걸 보고 다급히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형부가…….”

란샹은 말을 꺼내자마자 울먹이며 더 이어나가지 못했다.

사오핑은 고개를 돌려 진보에게 말했다.

“너 먼저 자전거 타고 가. 밀가루는 너희 집에 보관해 뒀어. 내가 가지러 갈 테니까.”

진보는 영리한 청년이라 사오핑 누나 집에 일이 생긴 걸 알아차렸다.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바로 자전거를 타고는 돌아보며 말했다.

“도움 일 있으면 말해.”

진보가 간 후 동생을 안심시키려고 사오핑은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봐”

란샹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형부가 노동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작업장에 끌려갔어.”

“난 매형이 죽은 줄 알았잖아! 지금 어디 있어?”

사오핑이 동생에게 물었다.

“우리 마을에 있어”

“노동 교육엔 왜 끌려간 거야?”

“밖에서 쥐약을 조금 팔았대. 사람들이 그러는데 형부가 자본주의 노선을 따른다고…….”

“누나는?”

“조카들 데리고 우리 마을로 갔어, 나한테 언니 집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길에서 오빠 기다리고 있었어.”

“아버지랑 형은 어디 있어?”

“몰라, 나도 집에 못 갔어. 언니가 여기에 있으라고…….”

쑤사오핑은 잠시 초조하고 괴로웠다. 이 일로 사오핑 가족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걸 알고 있었다. 요즘 주민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정치적인 명예는 아주 중시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나머지 가족이 집회에서 이런저런 뒷말을 들어야 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농촌에 사람이 필요할 때 가족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건 기정사실이였다.

게다가 매형은 평상시 뻘질거리며 돌아다니기만 하고 노동을 게을리했다. 그래서 집 형편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누나 혼자 두 조카를 키웠다. 노동 교육을 받으면 망신당하면 그만이지만 노동 분배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1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양식값을 지출해야 할지 모른다. 지금 누나네는 몇 년 동안 갚지 못한 식량값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었다.

“나쁜 놈!”

쑤사오핑은 화가 나서 욕을 했다.

“언니만 불쌍해.”

란샹은 괴로워하며 말했다. 란샹은 올해 열세 살이라 몸이 이미 성숙하기 시작했다. 흰 옷을 입긴 했지만 까만 단발머리는 단정했고, 하얀 얼굴에 매끈한 턱선이 아주 사랑스러웠다. 가난 때문에 어려서부터 철이 들어, 네다섯 살이 갓 되었을 때부터 종종 조그만 광주리를 들고 돼지풀과 딸감을 하러 다녔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 공부를 아주 잘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형이 집에서 계산을 할 때 옆에서 한 번에 계산해 냈다. 그래서 늘 아버지와 형은 놀라 어안이 병병하곤 했다.

사오핑은 동생과 관쯔촌의 길가에 서서 매형이 미워 이를 갈고 있었다.

사오핑이 란샹에게 말했다.

“가자, 마을로 돌아가!”

“언니가 나한테 집 지키고 있으라고 했는데…….”

“밤에 너 혼자 어떻게 여길 지켜? 게다가 이 집에 무슨 금덩어리가 있다고! 낡아빠진 대야랑 그릇들은 도둑도 안 훔쳐 가! 문 잠그고 집에 가자.”

“알았어!”

란상도 전부터 거기에 있는 게 괴로웠다. 마을로 가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었다.

두 사람은 문을 잠그고 좁을 길을 따라 총총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에서 500m 남짓한 곳에서 사오핑과 란상은 불안하게 서서 더 가지 못했다. 공사의 농촌 기초건설 전투 작업장이 바로 그들의 사는 마을 어귀에 있었다. 나팔소리가 크게 들렸다. 멀리 등라허 맞은편 산허리 언덕에는 빨간 깃발들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개미 떼처럼 분주했다. 남매는 그 못 돼먹은 놈이 거기서 노동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걸 곧 알아차렸다. 아버지도 거기 있을지 모른다. 기초건설대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작은아버지도 있을 것이다. 작은아버지는 생산대대(生産大隊)<sup>6)</sup>의 지부 위원이자 기초건설 대장이었다. 작은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생산대대의 지도자였다. 그런데 작은아버지는 무턱대고 적극적이기만 해서 이런 ‘자본주의’적인 일에 인정을 호소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공사의 일이라 도와주고 싶어도 큰 도움이 안 될 거였다.

사오핑과 란상은 잠시 눈앞의 거창한 광경에 멍해져서 그 자리에 선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맞은편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볼 게 뻔했다. 정말 창피한 일이다! 이 마을 사람들이 낯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바로 왕만인의 처남과 처제라고 할지도 모른다.

“우리 차라리 산 뒤로 돌아서 집으로 갈까?”

란상은 기발한 생각을 해내 오빠에게 말했다.

사오핑은 잠시 생각하고 동생 의견에 따랐다. 두 사람은 등라허를 지나 산 뒤편의 밭길로 돌아서 갔다.

6) 인민공사의 하위 조직으로, 생산대대는 생산대(生産隊) 약 10개로 이루어짐.

작업장 위쪽 발두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참지 못해 몸을 숙이고 고개를 내밀어 아래쪽을 살펴봤다. 그들에겐 아래 상황이 노동이 아니라 전쟁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무질서했고 붉은 깃발이 펄럭이며, 나팔 소리가 온천지에 시끄럽게 울려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었다.

“오빠, 저기 봐! 형부 아냐? 손수레를 미는 사람! 형부가 미는 손수레에 아버지가 흙을 싣고 있잖아.”

사오핑도 그 모습을 보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여동생을 슬며시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우리 집으로 가자.”

## 제 5 장

1975년은 나라의 정치 상황이 좋지 않아 사회적으로 많은 동요와 혼란이 일어났다. 4월에 장춘차오(張春橋)<sup>7)</sup>는 중국 공산당 중앙기관의 간행물인 <홍기> 잡지에 ‘자산계급에 대한 전면적 독재 강론’을 발표했다. 문화 대혁명은 10년이 돼가는데 중국의 자산계급과 자본주의는 비판할수록 더 많아지는 듯했다.

농촌에서는 계급투쟁의 압력이 더 컸다. 현(縣), 사(社), 대(隊) 3개의 급(級)은 모든 업무를 혁명 대비판으로 시작했다. 일부 현은 행정 간부 사오백 명이 함께 생산대에 가서 대대 서기의 ‘자본주의 경향’을 비판했다.

공사에서는 무장한 ‘민병소분대’를 조직했다. 이 조직의 일은 전문적으로 계급투쟁을 하는 것이었다. 각 마을에서 모집한 ‘건달’ 청년들은 공사의 무장 간부 지도 아래, 시장에서 농민들의 돼지고기와 식량 등 판매를 금지하는 것들을 압수했다. 그리고 개인 경작지를 몇 자 더 크게 사용하거나 혹은 ‘자본주의’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 도둑, 노름꾼, ‘불량배’, ‘악질 여성’ 등을 공사의 작업장에 집합시키고 강제로 ‘노동 교육’을 시켰다. ‘노동 교육’ 대상자는 노동 분배를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숙식을 해결하며 매일 아주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 작업장에서 손수레로 흙을 실어 나를 때, 보통 네 명은 흙을 싣고 한 명은 수레를 밀었다. 수레를 밀 때는 달려야 했다. 이런 ‘반동분자’들은 쉴 틈이 전혀 없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흙을 싣는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꼭 수레를 미는 사람의 친척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자신뿐 아니라 친척까지 괴롭히고,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는 것이다.

오늘 오전에 공사의 민병소분대가 왕만인을 관쓰촌에서 이 작업장으로 끌고 왔다. 며칠 전에 왕만인은 현을 한 바퀴 돌면서 허난(河南) 약장수한테서 쥐약을 조금 샀다. 돌아오는 길에 스거제 시장에서 그중 열댓 개를 되팔아서 한 개에 5전씩 벌었다. 도합 1원이 채 안 되었다. 이 일을 공사의 민병소분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이곳에 끌려와 생고생하는 것이다.

7) 중국의 사인방 중 한 명이고 문학평론가, 언론가, 정치가.

왕만인의 조상은 일찍이 ‘발공’(拔貢)<sup>8)</sup>에 합격했기에 그의 선조는 이 일대에 서 다소 명망이 있었다. 조부모 때에 와서 아편으로 집안이 망하고, 왕만인의 아버지는 나중에 마을의 유명한 망나니가 되었다. 1947년에 국민당의 후종난(胡宗南)<sup>9)</sup>이 이 일대를 공격할 때, 왕만인의 어머니는 전쟁을 피해 벼랑의 동굴에서 그를 낳았다. 이듬해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고생스럽게 그를 열아홉 살까지 키우고 1966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왕만인은 이 사회에서 혼자가 되었다. 그해에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는 세상이 혼란해져 아주 기뻐했다. 이듬해에 그는 현의 한 무투파(武鬪派)<sup>10)</sup>에 열성적으로 들어갔다. 첫 투쟁에서 다른 무투파의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포로로 잡힌 파에 들어가 처음 몸담았던 파를 공격했다. 어쨌든 그에게는 어떤 파든 다 마찬가지였다. 먹을 것과 매일 담배 한 갑을 배급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런 상관 이 없었다. 두 번째 투쟁을 치르고 그는 겁이 나, 무기를 버리고 관쓰촌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농사 싫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 밖으로 돌아다니며 조그만 돈벌이를 시작했다. 장사는 각 지역의 무투파를 상대로 했다. 그는 그들이 필요한 물품과 동선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몇 년 동안 배부르게 보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왕만인은 차가운 방구들 바닥에서 자다가 갑자기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주변의 시집 안 간 여자를 하나하나 생각하다가, 마침내 상수이촌 쑤위허우(孫玉厚)의 큰딸 란화(蘭花)로 점찍었다. 그 여자는 곱상하게 생긴 데다 몸도 튼실해서 장작을 패거나 물 길는 일, 농사일 모두 다 잘할 것 같았다. 왕만인은 그런 힘든 일은 하기도 싫어했고 하지도 못했다.

그는 밖에 돌아다니며 담이 커졌기 때문에 중매쟁이도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의 신붓감을 만나려고 소란을 떨었다.

관쓰촌은 상수이촌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그는 하는 일도 별로 없어서 며칠에 한 번 상수이촌에 다녀갔다. 처음엔 해 질 무렵 상수이촌 어귀 작은 길에서

8) 청나라의 과거 시험 중 하나.

9) 중화민국의 군인이고 저장성 성정부 주석을 지냄.

10) 문화 대혁명 때 무력을 써서 투쟁하는 파.

산에서 돌아오는 란화를 막아서서 무턱대고 관심받을 행동을 했다. 불쌍한 란화는 집이 가난해서 늘 형겅을 대서 께맨 옷을 입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하얗고 빛나는 얼굴을 가진 청년이 열정적으로 구애를 하니,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만인은 란화가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걸 알고, 어느 날 해 질 녘 삼수이촌 뒤편의 굽이진 강가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강렬하게 입을 맞췄다. 란화의 통통한 얼굴에 잇자국을 여러 개를 만들고 난 후, 전대에 준비해놓은 외지에서 산 세련된 옷을 란화의 손에 쥐여 주었다.

란화는 땅에 앉아 훌쩍이며 울었다. 겁이 나면서도 눈앞에 있는 이 남자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평소에 가족을 위해 온종일 산과 집에서 고생하고 저녁에는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래서 여태껏 이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지금 관썩촌의 이 대담한 남자는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있는 소녀의 감성을 한 번에 깨웠다. 그리고 마치 마른 장작이 불에 타듯 활활 타오르게 했다. 란화가 왕만인에게 말했다.

“전 지금 이 옷을 받을 수 없어요. 일단 도로 가져가세요. 집안 어른들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서…….”

란화가 아버지께 관썩촌의 왕만인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했을 때 썬위허우는 당장 불같이 화를 냈다. 딸을 크게 나무라고 ‘망나니’ 녀석과 결혼하는 걸 단호히 반대했다.

그러나 평소에 늘 아버지에게 어린양 같이 온순했던 란화가 이번에는 고집스럽게 울며 말대꾸를 했다. 그러면서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겠다고 했다. 썬위허우가 다급히 신발 한쪽을 벗고 딸을 때리려고 하자, 당시 열일곱 살이었던 사오안이 막아섰다. 이미 숙련된 농사꾼이 된 썬사오안(孫少安)은 당시 집안을 책임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보다 훨씬 더 사리분별을 잘했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아버지께 누나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썬위허우는 자식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땅에 주저앉아 탄식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걸 인정한 것이다.

결혼 후 왕만인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위는 아니었지만, 란화는 변함없이 그와 함께 했고 건강한 아들딸 하나씩을 낳아 주었다. 남편이 1년 내내 유유자적하게 돌아다녀도 그녀는 원망하지 않고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 밖 일을 혼자서 도맡아 했다. 그녀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가난이 몸에 배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남편을 어떻게 보든 후덕하고 어진 이 시골 여인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왕만인을 늘 사랑했다. 이 세상에 오직 이 남자만 그녀의 설렘 없는 청춘 시절에 처음으로 사랑의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다.

왕만인은 자신이 늘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가끔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오지 않을 뻔하면 화를 내며 말했다.

“난 원래 이래요. 뭘 어찌라고요?”

지금만 해도 그렇다. 그는 작업장에서 ‘노동 교육’을 받고 있고, 쓰러질 듯 지친 자기 몸만 신경 쓸 뿐 다른 일은 전혀 상관도 하지 않았다. 손수레를 밀 때도 오래된 솜저고리의 깃을 열어 낚아서, 땀에 흠뻑 젖은 빛바랜 연분홍 스웨터가 보였다. 스웨터는 도시 사람들처럼 바지춤에 찢러 넣었다. 아무 고생도 안 해본 뺨엔 얼굴엔 땀방울이 가득했다. 이따금 땀국물이 가득한 흰 모자를 벗어 얼굴을 닦고는 다시 머리에 썼다. 가끔 총을 든 민병소분대를 피해 고개를 돌려, 흙을 실어 담은 장인을 보며 히죽 웃기도 했다. 그는 넓은 세상을 돌아다녀 무서운 게 없었고 유괴 말고는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총도 들어 보고 도박도 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장사도 해봤다. 남의 여자라도 두 번이나 몰래 정도 통해 봤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돈도 많이 빚졌다. 매년 춘절이 되면 집에서 쇠지 못하고, 빚쟁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했다. 그는 그런 사람인데 이까짓 걸 신경 쓰겠는가? 그가 사는 마을은 관쯔촌이고, 그는 이 마을의 망나니였다. 제기랄! 어쨌든 이판사판이었다.

그렇긴 하지만 왕만인은 ‘무산계급 독재’라는 것이 좀 무섭긴 했다. 고생을 모르고 자라 노동을 한지 하루도 채 못 돼 온몸이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아팠



다. 이 ‘생고생’을 얼마나 더 해야 끝날지……. 속으로 쥐약 몇 봉지 때문에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됐다고 허난 약장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생각했다. ‘염병할! 감옥살이가 더 낫지! 감옥에선 자유는 없지만 일도 안 하고 한가하게 놀 수 있잖아.’ 물론 감옥에서는 밥만 좀 적을 뿐이라고 들었다. 어쨌든 그는 밥을 많이 먹지도 않는 사람이라 빈둥거릴 수만 있다면 적게 먹어도 상관없었다.

왕만인은 정말 움짱달짝할 수 없었다. 잠깐 동안 ‘죄를 지은’ 다른 수십 명을 보았는데, 모두 피곤에 절어 몸을 지탱하지 못했다. 그중 한 여자는 대략 마흔이 넘어 보였고, 지쳐서 다리를 절뚝거렸다. 뉴자거우(牛家沟)의 악질 여자였는데 자기 밭 옆에 산초나무를 심었다가 민병소분대에 몰수당했다. 그녀가 펄쩍펄쩍 뛰며 대대 서기에게 욕을 퍼부었더니 민병소분대가 그녀를 이곳으로 보냈다. 왕만인은 생각했다. ‘사람들이 흠을 좀 천천히 신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실 수 있잖아.’

그러나 장인만 빼고 나머지 청년 셋은 어느 마을에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장인은 이가 갈리도록 왕만인을 미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다지 탓할 생각이 없는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계속 흠을 퍼 담았다. 얼굴은 서리 맞은 듯 거무스름했으며 왕만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랬다. 왕만인 때문에 체면이 깎였으니 지금 장인은 사위가 원망스러웠다. 사실 요 며칠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왕만인을 미워해 왔다.

왕만인은 그날 스거제에서 쥐약을 팔고 번 돈으로 ‘다첸먼’(大前門) 담배 한 갑을 사고, 몇 개비는 남겨 솜저고리 주머니 안에 넣어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담배를 저 사람들에게 몰래 찢러 쥐 볼까? 저들이 받기만 하면 나를 좀 너그럽게 대해줄지 모르잖아.’ ‘저 사람들은 명령만 따를 뿐 간부도 아니고 총도 안 들었으니, 뇌물을 받을지도 몰라. 입장을 바꿔서 내가 담배를 받으면 그냥 있진 않을 거야. 해보자. 어쩌면 먹힐지도 몰라. “먹어야 체면”이란 속담도 있듯이 이것도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뭘!’

흠을 푸고 돌아올 때 민병소분대가 멀리 있는 걸 보고, 그는 서둘러 주머니에

서 담배 몇 개비를 꺼냈다. 눈은 먼 곳을 쳐다보면서 웃으며 청년들에게 건넸다. 청년들은 어안이 병병했다. 고급 담배인 걸 보고 서로 눈길을 주고받더니 어떻게 할지 몰라했다. 옳거니! 왕만인은 그들이 머뭇거리는 걸 보고, 그 틈을 타 제일 망설이는 청년의 손에 과감히 담배를 쥐여 주었다. 청년은 잠시 주저하더니 주머니에 담배를 집어넣었다. 지금은 못 펴도 작업을 할 때 피면, 그 담배가 청년 것인지 왕만인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한 청년이 이미 ‘배신’을 했으니 다른 두 명도 따를 것이다. 물론 왕만인은 장인에겐 감히 담배를 주지 못했다. 장인이 자신에게 눈을 부라리는 것을 보았지만, 왕만인도 개의치 않고 속으로 말했다. ‘뭘 부라려요? 이 사위가 얼마나 철저한지 보셨죠?’

그때, 쏜위허우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무능한 사위가 작업장에 끌려와 ‘노동 교육’을 받는 걸 알고, 치욕을 참아가며 흠을 실어줄 때, 자신이 당장 벼락이라도 맞아 죽지 못하는 게 한스러웠다. 그는 이 세상 이미 살 만큼 살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52년 동안 쏜위허우는 단 며칠도 즐거운 날이 없었다. 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자신이 한평생 행복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모두 자식들을 위해서였다. 자식들만 잘 살 수 있다면 평생 고생해도 상관없었다. 능력 없는 농사꾼이라 자식들을 이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남은 목숨을 내걸고라도 자식들이 보통 농사꾼 가정처럼 잘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했다. 그러나 요즘 그는 피가 마르도록 일을 했지만 집안 사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막내 둘은 억지로 학교에 보냈지만 누더기 옷을 입고 배부르게 먹지도 못했다. 학교에서는 눈총 받고 따돌림을 당했다. 큰아들은 원래 공부를 아주 잘했다. 그런데 결국 중학교에도 못 가고, 열세 살에 집으로 돌아와 고생하며 그를 도와 집안을 꾸려나갔다. 나이를 세어보니 벌써 스물셋인데, 아직 결혼도 못 했다. 그 나이의 농촌 청년은 이미 다 결혼했다. 하지만 쏜위허우가 무슨 능력으로 아들을 결혼시키겠는가? 지금 장가를 가려면 납폐를 보내야 했다. 비록 나라에서 막고 있지만 어느 집에서 칠팔백 위안을 마다하겠는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딸을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칠팔백 위안이 무슨 대수라고! 어느 집에서 자기 딸을 란화처

럼 그냥 공으로 망나니한테 시집보내겠는가? 물론 이런 결혼자금은 쏠위허우한테 정말 무서울 정도로 큰돈이었다. 게다가 결혼을 시킨다고 해도 어디에 신혼살림을 차려준단 말인가? 콧구멍만 한 토굴집에 쏠위허우 부부와 팔순이 된 노모가 살고, 큰아들 사오안은 토굴집 옆 작은 움막에 거처하고 있었다. 학교에 다니는 두 자식은 토요일이면 돌아와, 강 저편 진진하이(金俊海) 집에 묵을 수밖에 없었다. 토굴집 두어 개를 만들 여력도 없었다. 원래 쏠위허우네는 산세가 좋은 절벽에 터를 가지고 있었다. 미자진(米家鎮)에 사는 미인양(米陰陽)이 당시 풍수용 나침반으로 이곳을 봐주었는데, 풍수지리가 삼수이촌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오안이 생산대장을 맡아 틈이 나지 않았다. 만약 부자가 집 때문에 겨울 작업을 그르치면, 일 년 동안 또 양식값을 내야 했다. 게다가 토굴 두 개를 파고 문을 만들 돈을 구할 수도 없었다. 이 깊은 두메산골엔 나무가 자라지 않아 목재가 사람 목숨만큼 비쌌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큰딸 란화의 일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었다. 고집불통 딸이 당시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굳이 관쯔촌 망나니한테 시집가서 늘 하루 세 끼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딸은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 집 안팎을 책임졌다. 입술은 일 년 내내 부르르고 손은 남자 손처럼 굳은살이 박였다. 그런 걸 생각하면 쏠위허우는 산에서 나무에 머리 박고 한없이 울고 싶은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두 손자가 더욱 안타까웠다. 아이들은 쏠씨 삼대 후손이었다.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쏠위허우는 거의 일 년 내내 사랑하는 손자들을 집에서 살게 했다. 물론 그한테도 큰 부담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위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노심초사하진 않았을 것이다.

쏠위허우는 지금 기계적으로 삼을 들고 손수레에 흙을 퍼 담고 있었다. 등이 굽은 우람한 체구는 최대한 수그렸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않기를 바랐고 그도 사람들을 볼 낫도 없었다. 정말로 눈앞에 있는 저 파렴치한 사위를 삼으로 내려치고 싶었다. 뻥뻥한 놈. 그 꼬락서니로 또 뭘 할 수 있다고! 아내와 자식들이 지금 집에서 찢찢매는 건 생각지도 않고!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나서 바로 관쯔촌에 가서 사랑하는 두

손자를 데리고 와야겠군.’ 그는 딸이 이미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 제 6 장

쑤위허우의 집은 지금 난리가 났다. 란화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어머니에게 총을 든 사람이 남편을 끌고 갔다고 말했다. 착하고 배운 게 없는 란화는 이런 일의 심각성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엔 남편을 총살하려고 끌고 가는 줄 알았다. 나중에 마을 사람이 란화의 남편은 '노동 교육'을 받아야 해서 그녀의 친정마을로 끌려갔다고 알려 주었다. 그래서 란화는 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란상을 기다려 집을 보게 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친정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다. 그녀는 지금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 목숨에만 관심이 있었다. 쌍수이촌 사람 말로는 지금 네 명이 수레에 흠을 싣고, 그녀의 남편은 수레를 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총을 든 사람이 뒤에서 감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란화는 억장이 무너졌다. 아이들 아빠는 고생을 안 해봐서 며칠 못 버틸 텐데……. 그녀는 그들이 아버지에게 강제로 남편이 미는 수레에 흠을 퍼 담게 시켰다고 한 말도 들었다. 아버지는 체면을 중시하는 분인데 창피해서 죽을 생각을 할지도 몰랐다.

란화가 지금 가장 조급해하는 건 첫째 동생 사오안이 집에 없다는 것이다. 집에 이런 큰일이 생겨도 사오안이 있으면 의지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사오안은 볼 일이 있어 미자진에 갔다.

덧붙이자면 미자진은 다른 현에 속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에는 통합된 큰 진이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이 중요한 물품을 살 때 스거제에 없으면 위엔시현(原西縣)에 가지 않고 다 미자진으로 가서 해결했다. 미자진은 이곳에서 가깝기도 했고 위엔시현보다 물품도 훨씬 더 많았다. 이곳 산시성(陝西省)에 있는 물품뿐 아니라 베이징(北京)이나 톈진(天津)에서 온 것도 있었다.

사오안은 미자진에 물건을 사러 간 게 아니라 생산대 가축이 병들어 진찰받게 하려고 간 것이었다. 생산대에서 가장 일 잘하는 소가 병이 든 것이다. 스거제에는 가축병원도 없어서 오늘 아침에 생산 대장인 사오안이 직접 소를 끌고

미자진으로 갔다. 미자진은 황수이촌에서 15km가 넘고, 소까지 끌고 갔으니 사 오안이 오늘 밤 내로 황수이촌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걸 란화는 알고 있었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란화는 어머니의 소매를 잡고 울 수밖에 없었다. 작고 마른 허약한 어머니도 그저 딸과 같이 울며 아이들은 챙기지도 못했다. 두 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엄마와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울어댔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 통곡 소리를 들으면 집에 초상이 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상황은 뒷구들에 있는 쉰위허우의 어머니까지 놀라게 했다. 1897년에 태어난 노모는 이미 여든이 넘었고, 오래전에 중풍으로 온돌 뒷구들에 앉아만 있었다. 그녀는 지금 놀라 결막염이 걸린 눈을 깜빡거리며 온 가족이 대성통곡하는 걸 보고 무슨 큰일이 생겼는지 궁금해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손녀딸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가족들이 우는 소리와 표정만으로 집에 큰일이 났다고만 짐작할 뿐이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뒷구들에서 앞에 있는 며느리와 손녀딸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저 울기만 하고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노모는 마음이 급해 욕을 해댔다. 나중에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알아듣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을 막 알아들을 때쯤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손녀딸에게 말하는 통에, 노모는 어렴풋이 겨우 ‘총’이란 말만 들었다.

총? 설마 또 반란이 났나? 중화민국이 건국되고 노모는 무수한 전쟁을 겪었다. 친정과 시댁 식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노모는 기억할 수 없었다. 황토고원에 묻히기 전에 가족이 죽는 꼴을 또 본단 말인가? 이번엔 누가 또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 부대는 어디까지 왔을까? 황수이촌 근처까지 왔다면 식구들은 왜 아직도 도망을 안 가고 여기서 울고 있는 거지? 남자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간 걸까? 도망갈 수 있으면 서둘러 도망가거라! 그녀는 도망도 못 가고 또 살 만큼 살았으니 총 맞고 죽으면 더 이상 사고생 안 해도 된다. 아야! 식구 중에 누군가 국민당 군대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닐까? 식구들이 아직도 도망가지 않은 걸 보니……. 누굴까? 노모는 속으로 가족들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노모는 그녀가 알던 주위 사람들은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집에 있는 가족들은 빠짐없이 기억했다. 밖에 있는 식구들까지도. 위허우? 위허우는 아침에 밥도 먹었는데. 위팅? 위팅(玉亭)은 이미 군대 갈 나이가 지났어. 그럼, 손자 중 하나가 위험한 것 같은데! 위팅의 세 딸은 아무 일 없을 거고, 학교에 다니는 위허우의 두 자식은 아직 어려 전장에 가지 않을 거야. 아직 징병될 나이가 안 됐어. 그렇다면 분명 사오안뿐인데. 맞아! 사오안은 오늘 온종일 보이지 않았어. 세상에! 어제도 눈앞에 있었는데 설마 오늘 밖에 나가자마자 전장에? 방금 전쟁터에 갔으면……?

노모는 손자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생각이 들자, 뒷구들에서 대성통곡했다.

“불쌍한 우리 사오안!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 해 본 우리 손주야! 사람답게 살아 보지도 못한 네가! 아이고…….”

그녀는 앞구들에 있는 란화모녀가 고개를 돌려 자기에게 말하는 걸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진 못했지만 자신을 위로한다는 걸 알았다.

“이 불효 막심한 놈들아! 사오안이 죽었는데 너희들은 울고 왜 난 못 울게 하는 거냐? 너희들만 사오안을 아끼고 난 아니란 말이냐!”

란화모녀가 뭐라고 하던지 노모는 그저 사오안이 죽은 걸 슬퍼했다.

그때, 사오핑과 란샹이 집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란화모녀만 잇달아 울음을 멈추었다.

사오핑은 현에서 사 온 과일 사탕을 꺼내 조카들에게 주었고, 아이들은 좋아하며 재빨리 입에 넣었다. 그는 어머니와 누나의 얼굴에 남은 눈물 자국을 보고는 말했다.

“왜 울어요? 일이 터졌으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란샹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여물통을 들고 돼지 여물을 주러 나갔다. 철이 든 란샹은 자기가 이런 큰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걸 알고 어른들이 신경 쓰지 않도록 집안일을 하는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와 언니가 구들에 앉아 우는 걸 보고 돼지에게 여물을 안 준 걸 알았다. 돼지는 정말 집의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다. 형은 매년 봄이 되면 돈을 빌려 돼지를 사 왔다. 가족 모두가 서로

도우며 한 해 동안 돼지를 피둥피둥 살이 오르게 잘 먹여 길렀다. 그리고 춘절이 되어도 잡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산채로 팔았다. 그 돈이 바로 이듬해 가족의 ‘은행’이나 마찬가지였다. 란샹과 사오핑의 학비, 그리고 책값과 학용품도 그 돈으로 샀다.

란샹이 나가고 사오핑은 할머니가 여전히 울며, 있는 힘껏 손짓으로 자기를 부르는 걸 보았다.

그는 서둘러 구들 위로 올라가, 할머니 앞에 앉아 낡은 요 위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할머니가 소변이 마려운 줄 알고, 누나에게 얼른 밖에 있는 요강을 가져오라고 눈짓했다. 그때서야 누나와 어머니가 할머니를 의식하고, 할머니가 구들에 실수할까 봐 얼른 요강을 가져왔다.

할머니는 여전히 사오안 때문에 울고 있었다. 울면서 손으로 요강을 밀치며 화를 냈다. 그리고 란화모녀가 이 큰일이 난 걸 말도 안 해 주고, 지금 또 할머니 뜻을 몰라주어 몹시 화가 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목이 다 쉬도록 울면서 말했다.

“사오안아…….”

그리고는 한 손으로 사오핑의 셔츠 깃을 잡아 힘껏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할머니는 울면서 사오핑에게 물었다.

“사오안을 …… 어디에서 싸 죽였어?”

“뭐라고요?”

사오핑은 할머니 말을 제대로 못 들었는지 큰 소리로 물었다.

“사오안의 시신은 …… 가져왔어?”

“아이고! 형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사오핑은 얼굴을 찌푸리며 웃었다.

“네 어머니랑 누나가……. 그럼, 누가 죽었니?”

“아무도 안 죽었어요! 다 살아 있어요!”

사오핑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네 어머니와 누나 …… 누구 때문에 운 거야?”



“매형 때문예요! 매형이…….”

사오핑은 애타 하는 할머니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네 매형이 왜?”

할머니는 잠시 울음을 그쳤다. 할머니가 안심이 되는 건 자신의 혈육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다. 할머니에겐 손녀사위도 소중했지만 결국 가족들이 더 소중했다.

사오핑은 여전히 할머니께 매형 일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몰라, 할 수 없이 내키는 대로 말했다.

“매형이 일을 좀 저질러서요, 노동 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다.

“우리 강아지가 …… 울어?”

사오핑은 참지 못해 웃음을 터트렸다.

어머니가 온돌에서 내려와 아들에게 말했다.

“그냥 할머니께 아무 일도 없다고 말씀드려.”

“엄마랑 누나가 우는 걸 봤는데, 달랠 수 있겠어?”

바로 그때, 할머니는 더 다급해져 바닥에서 사탕을 먹는 증손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강아지? 여기 잘 있잖아!”

“아니요, 매형요!”

사오핑도 다급해졌다.

할머니는 끝장을 보려는지 깡마른 손으로 사오핑의 셔츠 깃을 짹 잡고 또 물었다.

“네 매형한테 무슨 일이……? 우리 강아지가 온 게 왜?”

사오핑은 큰 목소리로 말했다.

“강아지가 아니라요, 노동 교육요! 학생이 말썽부리면 선생님께 혼나는 것처럼요.”

급한 마음에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했다.

“아!”

할머니는 그때서야 긴 한숨을 내쉬었고, 사오핑을 잡고 있던 꺾마른 손을 풀고는 피곤했는지 눈을 감았다. 이번엔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다. 예잇, 쓸데없는 일로 늙은이며 애들까지 다 울게 했구먼! 옛날엔 학교 선생이 철 잣대로 학생들을 때려 학생들 손이 찌뽕만큼 부었지. 한 번 혼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머릿속의 공포가 사라졌는지 할머니는 평소대로 아무 생각도 없는 모습이었다.

사오핑은 룬예가 준 돈으로 할머니께 드릴 안약과 진통제를 산 게 생각났다. 할머니는 병을 달고 사셨다. 특히 눈이 더 심했다. 벌써 몇 년째 고생이었다. 집에는 약 살 돈이 없었고, 할머니도 마다해서 결국엔 만성질환이 되었다. 어렸을 때 매년 여름이면 그는 란샹과 아침마다 들에 나가 이슬이 맺힌 풀잎을 뽑아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 눈에 넣어 드렸다. 할머니는 안약을 넣을 때보다 훨씬 편하다고 하셨다. 하루는 이슬 많지 않아 그와 란샹은 어렵사리 풀잎을 따다. 그런데 란샹이 어려 집 앞에서 발을 헛디뎠다. 풀잎에 있던 이슬이 모두 쏟아져 버렸다. 그래서 란샹은 초조한 마음에 아침 내내 울었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반신불수로 움직이지 못하면서부터 가족 모두 다 마음고생이 많았다. 식사 때마다 첫 그릇은 늘 먼저 할머니께 드렸다. 손자들 모두 할머니를 끔찍하게 사랑했다. 누구 하나 할머니 품에서 자라지 않은 손자가 없었다.

사오핑은 할머니에게 이불을 돌려주고, 온돌에서 풀쩍 뛰어 내려와 심란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어머니와 누나에게 말했다.

“누나는 우선 밥을 짓고, 어머니는 수수와 검은콩을 좀 담아주세요. 이불도 준비하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매형이 있는 배식장에 가져다주고 올게요. 저녁에 어머니와 누나는 여기에서 주무세요. 만약 형이 돌아오지 않으면 형이 자는 데서 아버지를 주무시게 하세요. 저랑 란샹은 진보네 가서 잘게요. 형이 돌아오면 생산대 가축사육장에서 하룻밤…….”

사오핑은 침착하게 아무 생각도 못 하는 어머니와 누나에게 당장 할 일을 말

해주었다. 집으로 올 때 그는 형이 생산대의 소를 치료하려고 미자진에 갔다고 들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게 뻔했다. 날이 곧 저물어왔고 집은 여전히 복세통이었다. 잔혹한 현실은 사오핑을 잠시나마 집안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만들었다. 이미 다 자랐으니 집안을 책임질 수 있었다. 생각해 보면 형은 사오핑 나이에 집 안팎 대소사를 혼자 다 책임졌다.

어머니와 누나는 사오핑이 시키는 대로 각자 할 일을 했다. 모녀에게는 정말 그들을 이끌어 줄 사람이 필요했다.

지금 사오핑은 오히려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전에 생활이 극도로 힘들었을 때, 마음이 여렸던 그는 늘 별별 떨다가 억지로 자기 머리를 때렸다. 때리고 또 때려 그는 점점 과감해졌다.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생활의 또 다른 맛을 보았다. 그는 스스로 점점 어른이 되어 간다고 느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라도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천천히 알아갔다. 이미 여러 책을 읽어서 평범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모두 다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걸…….

사오핑은 상자 위에 있는 누런 헌 책가방에서 할머니께 드릴 약을 꺼냈다. 약병을 들고 다시 온돌에 올라가 가물가물 잠이 든 할머니를 흔들며 깨웠다. 그리고 할머니 눈높이까지 약병을 들고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 드리려고 약 사왔어요. 이건 눈 고치는 약이고, 이건 진통제예요. 몸 어디든 아플 때 이 약 하나 드시면…….”

할머니의 별건 눈이 잠시 깜빡였고 처진 입술은 움실거렸다. 할머니는 힘겹게 깡마른 손 한쪽을 들고 사오핑의 머리를 한참이나 쓰다듬더니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사오핑이 다 컸네.”

“할머니, 고개 드세요. 제가 안약 넣어 드릴게요.”

사오핑이 할머니에게 안약을 다 넣었을 때, 할머니 눈에서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말없이 온돌에서 내려왔다. 뜨겁고 싸한 감정이 가슴에 차올라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제가 커서 할머니 병 고쳐드릴게요. 할머니만 살아 계시면 제가 꼭 행복하게 해 드릴게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온 가족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의 안색을 살폈다. 일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었다.

쑤위허우는 시커먼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샵을 대문 뒤에 놓았다. 가족들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도 말을 붙이지 못했다. 란샹은 언제 또 나가 땀감을 했는지 때마침 조용히 문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또 살금살금 부뚜막으로 가서 땀감을 쏟아부었다.

쑤위허우는 땅을 딛고 서서 담뱃대로 담배쌈지를 계속 굽어대며 아무도 보지 않고 말했다.

“집에 있는 먹을 것 좀 준비하고, 이불도 꺼내 놔.”

“제가 다 어머니께 준비하라고 했어요. 조금 있다가 매형한테 가져다줄게요.”

사오핑이 차분히 말했다.

쑤위허우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고는 안색이 풀어졌다. 결코 못한 사위가 안타까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이 그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 아니다. 아들이 자신의 심정을 알고,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준다는 게 속으로 너무 고마웠다. 그때 그는 둘째 아들이 이미 장성했다는 걸 안 듯했다. 그렇다. 둘째를 보니 형처럼 몸집이 컸다. 학교에서 잘 먹지 못해 좀 말랐을 뿐…….

사실 위허우는 속으로 늘 자식들이 아주 자랑스러웠다. 자식들은 하나같이 사리 분별이 있고 건장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살아있는 의미였고, 살아야 할 이유였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사오핑의 어머니가 갑자기 허둥대며 부뚜막 옆에서 소리쳤다.

“아이고, 세상에! 돼지 여물 주는 것도 잊어버렸네.”

쑤위허우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마누라한테 잔소리하려는 참에, 딸 란샹이 부뚜막에서 하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 제가 벌써 줘어요.”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길이 일제히 조금 전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열세 살짜리에게 향했다. 란상은 삼태기 안에 있는 땀감을 털어 넣고 있었다. 언제 이렇게 많은 땀감을 했는지 하루 이틀은 충분히 땀 수 있는 양이었다. 사랑스러운 란상은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쑤위허우 부부는 감격해서 막내딸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다른 집 같으면 집안의 막둥이로 응석 부리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 이렇게 클 때까지 변변한 옷 한 벌 해 입히지도 못했다. 지금 란상은 이미 스거제의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몸에 맞지 않은 몇 년 전의 험 옷을 아직도 입고 있었다.

쑤위허우는 가슴이 먹먹해져 집에서 나와, 마당에 서서 담배쌈지를 굽어 댔다. 큰 체구를 숙인 채, 등라허 맞은편 어두컴컴한 묘오핑산(廟坪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산은 여전히 쑤위허우가 젊었을 때처럼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늙은 데다 더 무능해졌다.

## 제 7 장

사오핑 가족이 급히 밥을 먹고 난 후, 어머니는 수수와 검은콩을 넣은 죽을 찐다. 사위가 안쓰러워 아침에 먹다 남은 수수 찌빵 몇 개와 절인 배추 몇 점을 그릇에 더 넣어 도시락 위에 담았다.

사오핑은 곧바로 도시락을 들고, 동그렇게 만 이불을 걸머지고 집을 나섰다. 마을 초등학교에서 노동 교육을 받는 매형에게 가져다줄 것이다. 들기 편하도록 먹을 것을 이불 사이에 쑤셔 넣었다.

마당을 나가서 작은 비탈길을 내려가 큰길에 도착했다. 달은 이미 선선산(神仙山)과 마오핑산 위로 떠 올라 어스름한 마을과 대지를 은은하게 비추었다.

사오핑네 집은 가장 남쪽의 마을 어귀에 독채로 있고, 마을의 다른 집들과 떨어져 있었다.

작은 길을 나가면 바로 텐씨 부락이었다. 작은 두메산골에 토굴집과 동굴집들이 한 집 한 집 이어지고 높이가 들쭉날쭉하게 여러 층으로 되어있었다. 쌍수이촌의 텐 씨 대부분이 여기에 살아 텐씨 부락이라고 불렀다. 사오핑의 작은아버지 쑤위팅도 여기에 살고 있었고, 대대 서기인 텐푸탕의 집과 별로 멀지 않았다. 원래 사오핑네도 여기 살았는데, 사오핑이 두 살 때 이사를 했다. 1960년 초반은 마침 어려운 시기였다. 그런데 산시(山西) 타이위안(太原)에 있는 제철공장에 다니던 작은아버지가 느닷없이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작은아버지는 결혼 후 살 곳이 없었다. 할머니한테는 토굴집 한 채뿐이었는데,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작은아버지를 거기에 살게 했다. 그래서 사오핑네는 강 맞은편에 있는 진보네 집을 빌려 몇 년 동안 살았다. 나중에 아버지는 지금 사는 곳에 겨우 토굴집 한 채를 지었다. 새 터전을 마련한 셈이었다.

텐씨 부락에 사는 텐 씨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 전에 대부분이 가난했다. 후에 외지에서 온 다른 몇몇 성씨도 대부분 이 일대에 살았다. 지금도 텐푸탕네 집만 좀 괜찮은 것 말고는, 대부분은 여전히 보잘것없이 낡았다. 중화인

민공화국이 건국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시골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텐씨 부락 맞은편 마오핑산과 선셴산 사이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실개천은 큰 골짜기 동라허과 만난다. 두 강이 만나는 곳은 작은 삼각주가 형성되었다. 삼각주 한끝에 언제 세웠는지 모르는 룡왕묘(龍王廟)가 있다. 지금은 다 쓰러져 가는 공연 무대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미 폐허가 되었다. 폐허가 되기 전엔 마을 초등학교가 바로 이 절 안에 있었다. 초등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회의하는 곳이기도 했다. 나중에 다른 곳에 학교를 새로 지어 이 절에서는 춘절에 양가(秧歌)<sup>11)</sup> 공연만 며칠 동안 할 뿐, 평상시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은 마을에 회의가 있으면 모두 새로 지은 학교에서 했다. 이곳에 절이 있어서 삼각주는 마오핑(廟坪)<sup>12)</sup>이라고 불렸다. 마오핑은 평평한 대지에 뻗뻗한 대추나무 숲이 있어 샹수이촌의 명승지라고 할 수 있었다. 대추나무들은 과거에는 진씨성을 가진 사람 것이었지만, 국유화되어 마을 사람 모두의 재산이 되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곳은 영롱한 비취빛 세상으로 변했다. 음력 8월 대보름이 가까워지면 대추가 모두 다 빨갭게 익었다. 검은 나뭇가지와 붉은 열매 그리로 녹황색 잎이 모두 다 알록달록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다. 매년 대추를 수확하는 4, 5일 동안 샹수이촌은 그야말로 성대한 명절이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대추를 따고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었다. 이 가난한 벽촌에는 특별히 귀한 먹거리가 없지만 대추마저 옥처럼 귀한 것이었다. 이 계절에는 많은 사람이 배가 호강에 겨워 아플 지경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대추를 수확하고 나면 종종 설사로 열흘 넘게 나가지 못했다.

마오핑 대추나무 숲 뒤편이 바로 마오핑산이다. 마을 인근의 다른 산들보다 높기 때문에 닭이 한 발로 서 있는 듯해 특별히 눈길을 끌었다. 요 몇 년 ‘농업은 다자이를 배우자’(農業學大寨)<sup>13)</sup>로 마을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먼저 이 산을 계단밭으로 개간했다. 지금은 이미 산 정상까지 총밭이 있다. 멀리서 보면

11) 중국 북방 농촌 지역의 민간 가무의 하나로 새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

12) 절이 있는 평평한 곳이란 의미.

13) 농업은 다자이를 배워야 한다는 운동. 다자이는 중국 산시성의 모범적인 생산 조직의 이름.

거대한 화권(花捲)<sup>14)</sup> 같았다. 산과 절, 대추나무 숲 그리고 절 앞의 두 줄기 개천은 삼수이촌의 많은 풍경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텐씨 부락의 길에서 내려가 등라허를 건너 삼각주 대추나무 숲 오솔길을 지나면 등라허와 절 앞에서 만나는 강이 바로 쿠예허(哭咽河)이다. 이 강은 작지만 그 유래가 평범하지 않다. 옛날, 이 골짜기에는 물이 없었다. 인간 세상에 유람하러 내려온 옥황상제의 딸이 이곳에 왔다가 진 씨라는 청년을 사랑하게 되어 결국 하늘로 돌아갈 시간을 넘겨버렸다. 후에 옥황상제는 격노해서 딸에게 하늘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만약 이틀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딸을 흙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녀는 인간 세상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어 옥황상제의 명령을 거역했다. 인간 세상의 흙이 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 남겠다고 맹세했다. 이틀 후에 선녀는 평범한 황토산으로 변했다. 선녀가 사랑한 남자는 너무 슬퍼한 나머지, 날마다 선녀가 변한 흙산 아래에서 무릎 꿇고 목메어 울다가 이 산 아래에서 죽었다. 그의 눈물이 이 작은 강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선녀가 변한 흙산을 선선산<sup>15)</sup>이라고 했고, 눈물이 흘러 변한 강은 쿠예허<sup>16)</sup>라고 불렀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진 씨 조상이 자기 가문을 빛내려고 꾸며낸 것이다. 그래서 진 씨 조상의 묘들이 쿠예허 북쪽 강변 선선산 아래에 있는 것이다. 묘지에 진 씨 몇 대를 안치했는지 모르지만, 묘들이 뽁뽁하게 가득했다. 그리고 진 씨 어느 대 사람이 향나무들을 심었는지 굽기가 꽤 두꺼웠다. 매년 겨울에 대지가 황량해질 때, 곳곳에 향나무만 푸르러 특별히 시선을 끌었다.

등라허와 쿠예허가 있어서 이 마을을 삼수이촌이라고 했다.

쿠예허 위에 몇 걸음이면 건너갈 수 있는 작은 다리가 있다. 마을의 최고령 노인도 다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이 다리는 해마다 무너질 듯 흔들렸지만 늘 그 자리에 있다.

쿠예허 다리를 지나면 바로 진자만(金家灣)이다. 다른 성씨 몇 집을 제외하고

14) 중국식 꽃빵.

15) 신선이라는 뜻.

16) 목메어 울다는 의미.



진 씨 대부분이 여기에 살고 있다. 굽이진 강변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꽤 복잡했다. 진 씨 조상의 무덤 넘어 뒷산 기슭에 부잣집 두 채가 따로 더 있는데 모두 진씨 집이다. 한 채는 생산 2대(生産二隊) 대장인 진진우(金俊武) 삼 형제 것이고, 다른 한 채는 지주 출신인 진광량(金光亮) 삼 형제 것이다.

옛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 전에 진 씨가 줄곧 삼수이촌을 좌지우지했다. 이곳의 토지와 모든 작물은 진 씨 것이었다. 듣기로는 송나라와 명나라 때, 주부(州府)의 세력 있는 대지주 몇 명이 진 씨 일가에서 나왔다. 당시 그들이 소유한 토지는 이미 삼수이촌보다 훨씬 더 컸다. 그렇지만 명나라 말기에 몽고 오르도스 일대의 오랑캐가 대규모로 이곳에 침입해 왔다. 이 집의 대지주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가서 가업의 기반이 완전히 뺏겼다. 후에 진 씨는 다시 집안을 일으키지 못했다. 토지개혁을 할 때 진 씨 한 집만 지주로 정해졌고, 두 집은 부농이 되었다. 그 외에 일부는 중농이고 대부분이 빈농과 하층 중농이었다.

그러나 토굴집들로 봐서는 진자만 일대가 텐씨 부락보다 훨씬 괜찮았다. 대부분이 곧 무너질 것 같지만, 부잣집 흔적인 오래된 문루와 가시 넝쿨을 끼워 넣은 담장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게다가 많은 집엔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다. 어떤 집들은 아주 오래된 창문이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검고 낡았지만 자세히 보면 섬세한 세공과 화려한 문양도 조각돼 있어 과거 이 집이 세 꽤나 부리던 집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자만 농가와 큰 향나무가 있는 묘지 사이, 쿠예허 다리 건너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평지가 있다. 삼수이촌 초등학교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실이 모두 일고여덟 개로 된 동굴집으로, 최고 학년은 5학년이다. 5학년을 마친 아이들은 스거제의 중학교에 갔다. 방과 후에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 늘 텅 비어 있었다. 학교 마당은 아주 넓고, 마을 사람들이 만든 아주 볼품 없는 농구대가 세워져 있었다. 학생들은 나이가 어려서 주로 마을 청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기에서 놀다 갔다. 앞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이곳은 이미 절을 대신해서 마을 사람 전체가 회의하는 장소가 되었다.

스거제 공사가 삼수이촌 농촌 기초건설을 시작한 이후, 학교 교실은 다른 마

을 농민들의 숙소로 사용됐다. 교실이 좁아 일부만 머물 수 있어서 대부분은 마을에 남는 토굴집에 흩어져서 지냈다. 학교 교실에 묵는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자기가 쓰는 이불을 말아 체육용품을 보관하는 교실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낮에 편히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녁에 그들은 책상을 한 줄로 모아 침대로 사용했다.

요 며칠 학교는 특별히 교실 한 칸을 비워 각 마을에서 끌려온 ‘노동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머물게 했다. 오늘 이 학교에는 새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 바로 왕만인이었다.

지금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학교에 모여 있다. 총을 들고 있는 민병이 문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배식을 시작할 때가 되어야 민병은 사람들을 농민 배식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쑨오핑은 이불을 걸머지고 도시락을 들고는 텐씨 부락의 큰길에서 내려왔다. 조심스럽게 디딤돌을 밟으며 등라허을 건넜다. 그리고 마오핑을 지나 쿠예허의 작은 다리로 걸어와서 바로 초등학교 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곳이 너무 익숙했다. 5년 동안 이 학교에 다녔기 때문이다.

학교 마당으로 들어가니 총을 들고 있는 민병이 실실 웃으며 그를 향해 걸어왔다. 달빛 아래에서 자세히 봤더니 중학교 친구의 형이었다. 친구는 샤산촌에 살았고 고등학교엔 가지 못했다. 중학교 때, 어느 해인가 ‘학농’(學農)<sup>17)</sup>으로 샤산촌에 갔을 때 사오핑은 그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친했다.

친구의 형은 계면쩍게 웃으며 말했다.

“네 매형이 오늘 저녁에 덮을 이불이 없어서 마침 내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사오핑은 이곳에 더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친구 형에게 말했다.

“우리 매형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것 좀 전해 주려고요.”

“안 될 거 있나?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17) 문화 대혁명 기간 중 학생이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 한편 농민에게 계급 교육도 받는 교육 방식.

그는 총을 들고 교실 문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소리쳤다.

“왕만인, 나와!”

만인은 고개를 떨 군 채 문턱을 넘어와, 처남을 보고 놀라 구부린 허리를 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부끄러운 기색이 보였다.

사오핑은 이불과 도시락을 땅에 놓고 매형에게 말했다.

“이불속에 양식이 조금 있어요, 매형이 배식장에 가져다주던지…….”

왕만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재빨리 도시락 위의 그릇에 담긴 수수 찌뽕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한 입 베어 물고, 거의 씹지도 않고 삼켰다. 목에 걸릴 정도였다.

그는 다 삼키고 나서야 사오핑에게 물었다.

“누나랑 아이들은 어떡하고 있어……?”

“우리 집에 있어요.”

사오핑은 싫은 기색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럼 다행이네. 집에 가서 누나한테 나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

왕만인은 고개를 돌려 민병이 멀리 있는 걸 보고, 조용히 사오핑에게 말했다.

“남은 쥐약 몇십 개가 우리 집 상자 위에 있거든. 누나한테 잘 보관하라고 해 줘. 애들이 먹으면 큰일이니까. 그리고…….”

사오핑은 화를 참을 수 없어 몸을 휙 돌려 가버렸다. 그는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 하는 매형 얼굴을 정말로 한 대 갈기고 싶었다.

그는 학교의 작은 흙 비탈길을 내려와 쿠예허를 따라 진자만 농가 쪽으로 걸어갔다. 집으로 안 가고 바로 진보네 집에 가서 잠을 자기로 했다. 집에는 잘 곳이 없어, 토요일마다 집에 오면 진보네 집에서 잠을 잤다. 진보네 집은 따뜻하고 깨끗했다. 진보 어머니와 누나도 식구처럼 대해줬다. 버거운 생활 속에서 그는 오직 그곳에서만 가장 편안한 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쿠예허 다리 근처까지 왔을 때, 맞은편 마오핑 대추나무 숲 오솔길로 한 여자가 걸어왔다. 누구인지 채 알아보기도 전에 그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를 듣고서야 작은어머니란 걸 알았다.

사오핑은 속으로 작은어머니를 미워했다. 산시 말투를 쓰는 작은어머니가 식구가 된 후 사오핑네를 대대로 물려온 집에서 쫓아냈다. 그 후로도 무식한 작은어머니는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특하면 어머니한테 쌍소리를 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오래된 할아버지까지도 들먹이며 욕을 했다. 형이 어른이 된 후 작은어머니가 또다시 어머니를 욕했을 때, 형은 작은어머니를 코피가 터지도록 따끔하게 손봐주었다. 작은어머니는 그 후 오만방자하게 식구들을 욕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후에 사오핑 형제가 크고, 형이 생산대장을 맡아 마을에서도 꽤 버젓한 청년이 되자, 작은어머니와 작은아버지는 더 몸을 사렸다. 그들은 보잘것없이 가난했지만, 생산대대에서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생산대대 지부 위원과 부녀회장을 맡아 밤낮으로 회의를 하느라, 세 아이는 집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작은아버지는 늘 낡아빠진 옷에 배를 굶아도, 사람들에게 늘 거창한 혁명이론을 떠들어댔다. 모두가 뒤에서 그들을 비웃어도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 절대 내색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작은어머니는 이미 쿠예허 다리까지 올라왔다. 사오핑은 그녀의 반들반들한 -참빛으로 자기 침을 머리에 발라가며 빛은- 머리를 보았다. 그녀는 결혼할 때 입었던 오래된 빨간 비단 저고리도 입었는데, 덧옷이 너무 짧아 저고리단이 덧옷 아래로 나와 있어 눈에 아주 거슬렸다. 작은어머니가 이렇게 입은 건 오늘 저녁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다는 의미였다.

예상대로 그녀는 멈춰 선 채 사오핑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학교 마당에서 공사 지휘부가 여는 비판 투쟁 대회가 있는데, 참석 안 할 거니? 네 작은아버지가 대회장을 준비하라고 해서, 나도 방금 밥 먹다 말고……. 아이고, 네 매형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동정과 애석함을 드러냈다. 어쨌든 식구들을 챙긴다는 걸 사오핑이 알아주길 바라서였다.

“일 보세요, 저는 진보네 집에 갈게요.”

그는 쌀쌀맞게 인사하고는 몸을 돌려 가버렸다.

## 제 8 장

“형님! 형님!”

쑤위허우가 이불을 사오안의 토굴에 가져다 놓자, 큰길 아래에서 동생 위팅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위허우는 동생이 왜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지 이상했다. 평소에 위팅은 일이 있든 없든 저녁을 먹은 후에 늘 집에 들러 앉아있다 가곤 했다. 삼꾼으로 만든 헌 신발을 신고 앞구들에 동동 말아둔 이불에 기대어, 형의 담배쌈지에서 열심히 살담배를 굶어내어 계속 피워댔다. 그는 관의 일은 아주 열심히 했지만 농사 일에는 문외한이었다. 그래서 담배조차 살 능력이 없어 사시사철 형에게 받아 피웠다. 위팅이 집에 올 때마다, 사오안의 어머니는 남은 밥을 항상 따뜻하게 데워 내왔다. 그는 입으로는 사양하면서도 두 손으로 덥석 받았다. 사오안의 어머니는 그가 집에서 배불리 먹지 못하는 걸 알고 늘 걱정하며 음식을 차려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상 위허우 부부가 그를 다섯 살 때부터 키웠다. 결혼을 한 후 위팅의 아내 허평잉(賀鳳英)은 몇 해 동안 사오안의 어머니를 업신여기기 일쑤였지만, 그는 아내가 무서워 짝소리도 못했다. 그렇지만 사오안의 어머니는 허평잉을 나무라지 않았다. 위팅을 어릴 때부터 키워 마음속에 어떤 애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다음에 형수”라는 말은 조금도 거짓이 아니다.

“형님! 형님!”

위팅은 큰길 아래서 여전히 소리소리 질렀다.

위허우는 동생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집으로 올라오지도 않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아래에 있는 위팅에게 대답했다.

마당 밖 작은 흙 비탈길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위허우는 문득 깨달았다. 동생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건 사위가 오늘 ‘노동 교육’에 끌려갔기 때문이었다. 위팅은 지금 공사에서 인정받아 기초건설 지휘부의 부지휘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집에 ‘반동분자’가 생겼고, 사람들이 그가 선을 제대로 굽지 않았다고 할

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루될 게 두려워 형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큰길에 도착해서, 한참 만에야 위허우는 동생이 길가의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걸 알아봤다. 그는 동생에게 걸어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형님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위팅의 얼굴에 형을 걱정하는 기색이 보였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다. 어쨌든 자신의 형이기 때문이었다.

위허우는 아무 말 없이 담배쌈지에서 담배를 가득 굵어 담고 불을 붙였다.

위팅도 주머니에서 담뱃대를 꺼내 형의 담배를 담고, 또 형의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말했다.

“만인은 머릿속에 자본주의 사상 밖에 없어요. 이틀 노동 교육은 일도 아니에요. 학습하고 사상을 개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친척들도 이 녀석 때문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예요.”

위허우는 여전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사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더 말하기도 귀찮았다. 오직 딸과 두 손자 걱정뿐이었다.

“오늘 저녁 학교에서 비판 투쟁 대회가 열리는데요, 사오안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가족 중 한 명이 참석해야 돼요. 아무튼 참석하세요! 형님네가 사위를 감싸고도느라 비판을 반대한다는 걸 사람들이 떠들게 해선 안 돼요.”

위팅이 형에게 말했다.

“안가! 노동은 안 하면 안 되지만, 비판 대회도 해야 한단 말이냐?”

“형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은 빈농이잖아요. 마오(毛) 주석의 부름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죠!”

위팅이 형을 다독이며 말했다.

“어쨌든 난 안 가! 난 모욕을 당할 만큼 당했어! 내일 노동 교육을 받는 한이 있어도 안 가!”

위허우는 말을 끝내고, 화를 내며 몸을 돌려 집으로 되돌아갔다. 마음이 복잡

한데 길에서 그딴 일에 관해 의논할 생각이나 있겠는가?

위팅은 형이 그렇게 완강한 걸 보고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 형처럼 했다면 벌써 총지휘부에 보고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오늘 저녁 비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예잇! 위팅은 짜증이 났다. 공사에서 자신을 중용하려고 하는데, 하필 이런 때 친척이 곤란하게 만들다니!

위팅은 흙 비탈길까지 거의 올라간 형을 실망스럽게 보며 조용히 또 형을 불렀다.

“형님! 일단 좀 기다려요.”

위허우는 동생이 또 비판 투쟁 대회에 가라는 줄 알고 선채로 고함쳤다.

“네 일이나 해! 나 상관 말고!”

위팅이 걸어와 말했다.

“담배 한 줌만 줘요.”

그는 말을 하며 형한테 가서 담배를 한 움큼 꺼내 자신의 싹지에 담았다. 그리고는 급하게 가버렸다. 오늘 밤 막중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위허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서 있다가, 멀어져 가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가는 작은 흙 비탈길을 올라갔다.

1939년에 쏘위허우는 열여섯 살이었고 위팅은 겨우 다섯 살이었다. 아버지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두 형제와 어머니만 남겨져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 전엔 여자는 함부로 나다니지 못한 데다, 어머니는 전족을 했었기에 집에서 허드렛일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깥일은 모두 위허우 혼자 도맡아야 했다. 가진 땅이 없으니, 그는 할 수 없이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먹여 살리려고 마을 근처 형편이 좋은 집에서 품팔이를 했다. 스물두 살에 그는 가난한 집의 야위고 허약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의 아내는 비록 누런 얼굴에 비쩍 말랐지만 어머니와 동생을 아주 잘 보살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사는 건 그래도 행복했다.

위허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겨울 농한기에 스거제에 있는 한 상점의 가축을 끌고 수십 일 동안 고생해서 쥘두(軍渡)에서부터 황허(黃河)를 지나 산시(山

西) 류린진(柳林鎭)까지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거제의 상점까지 도자기를 실어다 주었다. 산시 류린은 도자기로 유명한 지역 중의 한 곳이었다. 그는 스거제의 상점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들여 주고 품삯을 받았다.

돈을 좀 벌고 나서, 그는 갑자기 동생을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당시 그는 농사꾼 중에서도 매우 추진력이 있었다. 열여섯 살에 돈벌이를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야가 보통 농사꾼보다 훨씬 넓었다.

쑤위허우는 당시 자기 집안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서, 멀쩡하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했다. 예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늘 배운 사람들 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이렇게 살지만 위팅을 대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은 평생 고생해도 상관없었다. 게다가 그는 위팅이 머리가 꽤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마을에서 겨울에 공부를 가르치는 진(金) 선생한테서 많이 배웠기 때문이다.

1947년에 위팅은 열세 살이었다. 당시 이 일대는 전쟁 중이었다. 위허우는 해방군에게 군량을 수송하는 마을 보급대에 들어갔다. 동시에 농사도 지어야 해서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보냈다. 그렇지만 위팅을 학교에 보내는 일은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전쟁이 길어져 학교가 다 문을 닫았다. 이제 위팅의 나이가 어리지 않아 더 이상 학교를 못 보내면 끝장이었다. 위허우는 갑자기 몇 년 전 류린에 도자기를 가지러 갈 때가 생각났다. 어느 날 도자기 가마 주인인 타오(陶) 씨 집에 사고가 나서, 위허우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의 목숨을 구해줬다. 타오 씨는 고마워서 위허우와 의형제를 맺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여러 번 말했다. 꼭 있는 힘을 다해 도와주겠다면서……. 위허우는 그때 자기가 위팅을 거기로 보내 공부시키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는 곧바로 진 선생을 찾아가 산시 류린의 타오 형님에게 편지를 써서 동생을 공부시키게 받아 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 타오 씨는 아무 걱정 말고 동생만 보내라고 바로 답장을 줬다. 위팅은 그가 다 책임지겠다면서.

그렇게 위허우는 동생을 산시 류린으로 보냈다.

그 뒤 그는 1년에 한 번 동생을 만나러 갔다. 동생에게 가기 전에 그의 아내



는 위팅이 1년 동안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챙겨주었다. 부부에게는 위팅이 가족 일 뿐 아니라 집안의 희망이기도 했다.

1954년에 위팅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이위안에 있는 제철공장에 취직을 했다. 가족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비록 위팅이 노동자이긴 했지만, 썬씨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외지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초반에, 위팅은 느닷없이 집으로 돌아와 자기가 한 달 동안 번 돈으로는 감자 한 포대도 못 산다며, 죽어도 타이위안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결혼해서 농업 생산에 참여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일은 위허우를 조바심 나게 했다. 아무리 달래도 위팅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위팅의 신붓감을 알아보려 다녔다. 그 해에 위허우네 집에 는 돈은커녕 먹을 것도 없었고 아이도 이미 셋이나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 아무 도움도 안 됐고 위허우 부부한테는 온통 부담이었다. 가족 모두 늘 배고파 뺏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동생도 벌써 스물여섯 살이라 정말 결혼을 시켜야 했다. 위팅은 결혼하려고 날마다 어머니에게 울먹이며 나이를 더 먹으면 결혼도 못 하고, 그럼 평생 헛사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어머니도 위팅과 같이 울기만 했다.

위허우는 못난 동생을 보고, 반평생을 고생해서 집안을 빚낼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희망이 허사가 됐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일로 크게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렇다. 운명인 것이다. 1년 동안 고생해서 농사를 짓고, 아직 수확도 안 했는데, 우박 맞은 꼴이 되었다고 자신이 들인 노력을 후회한단 말인가?

그래, 그럼 동생을 결혼시키자. 썬위허우는 동생의 배필감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그런데 납폐가 너무 비쌌다. 식구들 뼈를 다 팔아도 마련하지 못할 돈이었다.

어지간히 속이 타는 와중에 위허우는 또 타오 형님이 생각났다. 그래서 또다시 편지로 도움을 청했다.

일래 그는 이 문제로 타오 형님을 찾긴 했지만, 결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타오 형님이 친절하게 답장을 보내왔다. 그 마을에 한 여자가 위팅에게 시집을 의향이 있다면서, 위팅이 그 여자를 알 거라고 했다. 류린 초등학교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고 이름은 허핑잉이라고 했다.

위팅은 정말로 허핑잉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직접 류린에 가서 바로 그녀를 데리고 돌아왔다. 위허우는 바로 돈과 양식을 꺾어서 되도록 번듯하게 동생의 결혼식을 치러줬다. 그리고 곧바로 살던 토굴집을 비워주고, 새로 부뚜막도 지었다. 연일 고생이었다. 집을 빌려 사는 건 그렇다 쳐도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산더미 같은 빚을 졌다.

후에 위팅은 노동일이 쟁병에다 허핑잉도 살림을 할 줄 몰라 그야말로 사는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었다. 위허우의 처지보다도 못했다. 하지만 위허우는 담배와 먹을 것 외에 더 이상 도와줄 여력도 없었다.

그런데 썬위팅 본인은 지금은 가난해도 나름대로 즐겁게 산다고 생각했다.

그는 생산대대 당 지부 위원이자 기초건설대의 대장이었고, 빈농과 하층 중농 관리 학교 위원회의 주임이었다. 세 가지 직책을 맡아 마을에서도 지위가 있었다. 마을에 회의가 있으면 비록 그의 차림새는 초라해도 대표 자리에 앉았다. 또 배운 게 있어서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토틸탕 서기와 진천산 부서기는 글을 몰랐기 때문에 매번 그가 사람들에게 낭독했다.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만족스러운 나머지 배고픔조차 깡그리 잊어버렸다.

단지 집에 돌아와 보면 세 아이는 배가 고파 양양 울고, 아내도 마을 부녀자들의 싸움을 말리러 나가고 없었다. 그리고 먹고 난 그릇도 안 씻은 채 부뚜막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의 생활을 후회했다.

그가 혼자 부뚜막 풀무 앞에 앉아 밥이 다 되기를 기다리는데, 세 아이는 걸신들린 것처럼 솔단지 위에 엎드려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의 다 먹어 치웠다. 그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 타이위안 제철공장에서 잘 먹던 시절이 생각났다. 끼니마다 뜨끈한 찜빵과 야채를 곁들인 고기볶음은 그야말로 군침을 돌게 했다. 당시 한 끼에 밀가루 찜빵 세 개만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같았으면…….

위팅은 집에서 대충 밥을 먹고 기운차게 혁명운동을 하러 나갔다. 이 사회의 큰 물결 속에서만 위팅은 배고픔을 뒤로하고, 정신적으로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스거제 공사에서 모집한 열 개가 넘는 생산대의 농민들이 샹수이촌에서 기초건설을 시작한 이후로 쑤위팅은 더욱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총지휘는 공사 부주임인 쉬즈궁(徐治功)이 맡았고, 부지휘는 공사의 무장 특별 담당인 양가오후(楊高虎)가 맡았다. 나중에 공사는 각 생산대의 기초건설 대장 가운데 부지휘를 맡을 사람을 뽑았다. 기초건설은 주로 샹수이촌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임무는 당연히 쑤위팅에게 맡겨졌다. 곧바로 그는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특하면 확성기로 여러 통보와 명령을 했다. 그의 형이 왕년에 그를 집안의 큰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혁명이 그를 ‘큰 인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내까지도 요즘 그를 존중해서 ‘위팅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만족하는 것은 농민 배식장에서 식사를 하고, 오래전 타이위안 제철공장에서의 향수를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 대대의 부지휘관이기 때문에 조리장도 그에게 아부를 떨어, 기름진 돼지고기도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많았다. 며칠 후에 그는 쉬즈궁, 양가호우와 함께 배식장 뒤의 토굴집에서 풍성한 요리와 소주 몇 잔도 즐길 수 있다.

오늘 저녁에 지휘부의 비판 투쟁 대회가 또 학교 마당에서 열린다. 당연히 회의는 위팅이 주재를 할 것이다. 쉬즈궁은 총지휘관으로 개회식과 폐회식 연설을 하고, 양가오후도 비록 부지휘관이긴 했지만 아주 젊어서 오직 민병 소분대의 일만 관리했다. 이런 회의에서는 반동분자들이 소란을 피우는 걸 막기 위해 보통 회의장 치안 유지만 담당을 했다.

위팅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평잉과 함께 진자만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는 형한테 알려줄 일이 생각났다. 사위가 ‘노동 교육’ 대상자라서 형은 오늘 저녁에 반드시 비판 투쟁 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거기에서 사위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걸 장인이 지지하는 걸 공사 지도자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위팅은 왕만인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어쨌든 그 녀석도 위팅의 친척이란 게 생산대대 부지휘관인 자신에게는 약간 부끄러운 것이다. 형이 비판 투쟁 대회에서 처신을 잘하면 마음이 좀 놓일 텐데……. 그런데 이런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일깨워 주려고 갔지만 결국 소귀에 경 읽기였다. 에잇! 형을 비판 대에 세울 수도 없고…….

지금 위팅은 형한테서 가져온 담배를 피우며, 이미 등라허를 건너 마오핑 대추나무 숲 오솔길에 도착했다. 하지만 지금 바로 학교로 갈 수 없었다. 생산대대의 부서기 진진산을 만나 의논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텐푸탕 서기가 있었으면 구태여 진진산을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텐푸탕 서기가 공사에 회의가 있어 마을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진진산을 찾아가 의논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일이었다. 적어도 자기 혼자 나쁜 놈이 될 순 없었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오늘 오후 공동농장에서 일을 끝낼 때, 총지휘관인 쉬즈궁은 저녁에 있을 비판 투쟁 대회에서 다른 마을은 다 비판 대상이 있는데 쌍수이촌만 없다면, 설마 쌍수이촌에 반동분자가 한 명도 없겠냐고 위팅에게 말했다. 쉬주임 말도 맞았다. 그리고 마오 주석께서 계급투쟁은 한 곳도 빠짐없이 전 중국에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쌍수이촌에 없을 수가 있는지? 그러나 누굴 쌍수이촌의 반동분자라고 할 건지 위팅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흥, 진진산이 해결해야지 뭐!’

위팅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걷는 내내 마음속으로 궁리하고 있었다.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여우같은 진진산이 꾀를 쓰면 결국엔 자신이 처리해야 했다. 그는 부지휘관이었고, 진진산은 공사의 기초건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우리 마을에서 누굴 반동분자로 내세워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출신이 좋지 않은 몇 집은 고지식해서 그야말로 약점이 하나도 없었다. 만약 진보적이고 모범적인 것을 놓고 평가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모범

농민 자격이 충분하다.

한참 동안 고민해봐도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다. 쿠예허 다리를 건널 때 그는 혼자 자조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저녁 아마 형을 빼면 우리 마을에서는 반동분자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거야. 형이 방금 한 말은 비판대에서 충분히 비판받고도 남아.’ 그는 자신의 이런 황당한 생각 때문에 참지 못하고 소리 내어 웃었다. 아니다. 위허우는 어쨌든 그의 형이었다! 형이 비판 투쟁 대회에 안간다는 말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심한 말을 해도 그는 형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혁명은 혁명이고 가족은 가족이다.

해결책도 찾아내지 못하고 고민만 하던 위팅은 어느새 쿠예허를 지났다.

진전산 집으로 가는 흙 비탈길을 올라갈 때 그는 갑자기 적임자가 떠올랐다. ‘맞아! 텐얼을 총알받이로 쓸 수밖에 없겠어. 비록 노인네가 바보이긴 하지만 의사가 정확하게 정신병이라고는 하지 않았잖아. 게다가 우리 마을 사람 빼고, 공사 지도자들과 다른 마을 사람 대부분이 텐얼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에게 좀 멍청한 아들이 있고, 텐얼 본인도 머리가 좀 이상하다는 것만 알 뿐이지.’ 그러나 그는 뭘 비판할지 또 재빨리 생각했다. 아예 텐얼이 늘 중얼거렸던 ‘세상이 변할 거야’라는 말을 비판하기로 했다. ‘마오 주석의 세상, 무산계급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산계급 아니면 자산계급의 세상입니다! 당신이 바뀔 거라고 하는 세상은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으로 바뀐다는 말 아닙니까?’

그는 속으로 텐얼을 비판해 봤다. 논리가 꽤 그럴듯했다. 그때 그는 이미 진전산의 집 정원까지 와있었다.

진전산과 위팅의 형은 동갑내기로 원두 살이었다. 진전산의 집안은 중농이었다. 요즘 농촌의 중농은 당의 핵심 세력이 되지 못하는데, 전산이 당지부 부서기라는 직책을 맡은 게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하지만 진전산은 자신만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다. 1948년 해방군이 국민당 군대를 대대적으로 역습할 때, 그는 농민 구호부대에 들어갔다. 결국엔 계속 부대를 따라 란저우(蘭州)까지 공격했다. 어느 날 전투를 하던 중에 그는 다리

에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정부는 그에게 국가 유공 장애 3급을 주었다.

1951년에 진전산은 입당을 했다. 그때부터 그와 텐푸탕 두 사람은 줄곧 마을의 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그는 늘 보좌였고 텐푸탕은 간부직을 맡았다.

진 씨 중에 많은 사람이 출신 성분이 비교적 좋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 전에는 등라허 동쪽에 사는 진 씨가 마을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졌다. 그런데 건국 후, 등라허 서쪽의 출신 성분이 좋은 텐 씨가 확실하게 마을에서 기선을 잡았다. 정말 “30년 하동, 30년 하서”(三十年河東, 三十年河西)라고 황하의 흐름이 30년마다 바뀌는 것처럼 권력의 흐름도 바뀐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수십 년 동안 농촌 사람들 간의 관계는 아주 복잡한 변화가 생겼지만, 세력이 강한 집안 간의 분쟁은 늘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가끔 이런 분쟁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그럴 때 텐푸탕과 진전산은 각자 형제애로 푹푹 멍친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보통 두 사람이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늘 같은 성씨들이었다. 당연히 진 씨 중 많은 사람이 출신 성분은 좋지 않지만, 평소에 가능한 참고 위세를 떨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중 사내대장부 몇 명은 텐푸탕에게 굴복하지 않고 종종 은근히 도전을 했다.

여러 상황에서 진 씨는 텐 씨를 당해내지 못했다. 텐푸탕이 마을의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텐푸탕 본인의 능력은 그렇다고 쳐도 그는 현의 간부직을 맡은 동생이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보통 텐푸탕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것을 피했다. 진 씨 중 많은 사람이 텐푸탕 옆에 찰싹 붙어 있는 쏜위팅한테 오히려 반감이 많았지만, 쏜위팅의 형 가족한테 신뢰가 아주 깊었다. 그들은 진 씨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와 아주 사이가 좋았고, 특히 생산 1대 대장을 맡고 있는 쏜사오안은 마을에서 텐푸탕을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그래서 쏜위허우 가족은 진 씨들한테 존중을 많이 받았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쏜위팅이 하는 모든 일을 보통 다 참아 주었다. 어쨌든 그는 쏜위허우의 동생이었기 때문이다.

진전산은 일을 할 때 아주 신경을 썼다. 누구든 상관없이 그는 특별히 남의

잘못을 트집 잡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 나이에 구태여 사람들과 언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 못마땅할 때를 제외하고는 텐푸탕과 쏘위팅이 급진적인 방법을 써도 눈감고 모른 척했다. 게다가 지금 세상은 급진적인 것이 추세이다. 진진산은 사회의 큰 흐름에 대항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평상시 대부분 집안일에 신경을 썼다. 지금 그의 집안 형편은 마을에서도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다. 아들 진청(金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쳤다. 일찍 결혼해서 이미 손자와 손녀를 그에게 안겨주었다. 딸 진팡(金芳)은 미자진에 시집을 갔고 사위는 손재주가 좋아 아주 잘 살았다. 진진산은 2년 전에 낡은 동굴집 옆에 새로 두 채를 또 지어, 지금 아들네가 살고 있다. 넓은 마당에 일렬로 된 다섯 채의 큰 동굴집과 1년 내내 가족이 먹고 쓸 돈이 있었다. 한 평생을 살면서 충분히 만족했다.

쏘위팅이 진진산의 집에 들어갔을 때, 철삿줄에 묶인 검은 큰 개가 달려들며 크게 짖어 댔다. 그를 알아봤는지 몇 번 짖고는 멈추었다.

진진산은 가운데 동굴집에서 바로 나왔다. 쏘위팅을 보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진진산의 아내는 서둘러 생산대대 책임자인 쏘위팅에게 차를 한 잔 내왔다.

위팅은 평상시에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나서, 보통은 남의 집에서 차를 마시지 않았다. 차에는 알칼리가 많아 차를 마시면 배가 훨씬 더 고파진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가 농민 배식장에서 기름진 돼지고기 편육을 한 사발 먹었으니 차를 마셔서 소화를 시켜야 했다.

그는 차를 마시면서 진진산의 집을 둘러보았다. 부유하고 풍족한 게 느껴졌다. 그때, 마음속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다. 자신은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혁명을 부르짖어도, 결국에는 가난해서 신발 한 짝도 못 살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절대로 그의 혁명에 대한 신념을 흔들 순 없었고, 진진산을 경멸하게 할 뿐이었다. 흥! 지가 무슨 공산당원이라고! 혁명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혼자만 잘살려고 하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소농 경제사상만 짝 차서는!

그렇지만 진진산은 어쨌든 국민당의 총에 다리를 맞았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인 배경은 아주 강했다. 그리고 부서기인 데다 자신보다 직책이 높는데, 위팅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텐푸탕은 마을에 없고 생산대에 큰일이 있으니, 그가 진진산에게 물어보러 온 게 아닌가?

그때, 진진산은 쏜위팅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네며 물었다.

“위팅, 무슨 일로 온 거야?”

쏜위팅은 진진산이 켜진 라이터에 담뱃불을 붙이고 쉬 주임의 생각을 말했다.

“진산 형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진산은 약간 비웃으며 쏜위팅을 보면서 되물었다.

“그래서 너는 우리 마을에서 누가 반동분자라고 생각해?”

이 질문에 쏜위팅이 도리어 말문이 막혔다. 원래 진진산이 한 사람을 거론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반문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위팅은 잠깐 생각하고는 다시 밀어붙이기로 했다.

“제가 결정을 못 해서 이렇게 물어보러 왔잖아요. 텐푸탕 형님이 안 계시니 마을 일은 형님이 결정해야죠.”

“위팅,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일은 마을의 비판 투쟁 대회가 아니라 공사 지휘부의 비판 투쟁 대회야! 지휘부 지도자니까 당연히 네가 결정을 해야지! 우리 마을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넌 지금 우리 마을뿐 아니라 공사 대표야! 공사가 나서서 하는 일인데, 이 몸도 네 말을 들어야지!”

쏜위팅은 정말 진진산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게다가 시간도 다 돼서 할 수 없이 우물쭈물 말했다.

“그럼 …… 텐얼은 어때요?”

진진산은 바로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말했다.

“뭘 비판할 건데? 텐얼이 바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나?”

“세상이 변할 거라고 늘 말했잖아요. 그걸 비판해야죠.”

“바보가 수십 년 동안 한 말인데, 그게 어디 비판 명목이나 되겠어?”

진진산은 담배를 두 모금 빨고는 말투를 바꿔 말했다.



“그런데 자네가 보기에 비판할 수 있으면 하지. 자네 결정에 반대하지 않겠네.”

진진산은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저녁에 삼수이촌에서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으면, 워팅도 쉬 주임에게 보고하기 난처할 거야. 기왕에 쏜워팅이 머릿수 채 우려고 바보 텐얼을 점찍었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럼 그렇게 하죠. 전 비판 투쟁 대회 진행 때문에 먼저 갈게요.”

워팅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진진산은 그를 문 앞까지 배웅하고 말했다.

“먼저 가게, 날씨가 쌀쌀하니 옷 좀 걸치고 바로 가겠네.”

쏜워팅은 서둘러 진진산 집의 흙 비탈길을 내려와, 쿠예허의 작은 길을 따라 진자만 뒤편에 있는 학교로 바삐 갔다. 그는 학교에 불빛이 깜빡거리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모이기 시작하는 걸 멀리에서 보았다.